



2019 신약전서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침

2019 신약전서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침

© 2019년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2/17

번역 승인: 2/17

*Come, Follow Me—For Individuals and Families: New Testament 2019*의 번역

Korean

14717 320

목차

우리의 목표는 개종입니다	v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활용하기	vi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vii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ix
추가 자료	xi
어린이를 위한 가르침	xii
12월 31일~1월 6일: 우리의 학습과 관련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2
1월 7일~13일: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
1월 14일~20일: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0
1월 21일~27일: 요한복음 1장	14
1월 28일~2월 3일: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18
2월 4일~10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5장	22
2월 11일~17일: 요한복음 2~4장	26
2월 18일~24일: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30
2월 25일~3월 3일: 마태복음 6~7장	34
3월 4일~10일: 마태복음 8~9장; 마가복음 2~5장	38
3월 11일~17일: 마태복음 10~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7장; 11장	42
3월 18일~24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13장	46
3월 25일~31일: 마태복음 14~15장; 마가복음 6~7장; 요한복음 5~6장	50
4월 1일~14일: 마태복음 16~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4
4월 15일~21일: 부활절	58
4월 22일~28일: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0장	62
4월 29일~5월 5일: 요한복음 7~10장	66
5월 6일~12일: 누가복음 12~17장; 요한복음 11장	70
5월 13일~19일: 마태복음 19~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74
5월 20일~26일: 마태복음 21~23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20장; 요한복음 12장	78
5월 27일~6월 2일: 조셉 스미스—마태 1장;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2~13장; 누가복음 21장	82
6월 3일~9일: 요한복음 13~17장	86
6월 10일~16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90
6월 17일~23일: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94
6월 24일~30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	98
7월 1일~7일: 사도행전 1~5장	102
7월 8일~14일: 사도행전 6~9장	106
7월 15일~21일: 사도행전 10~15장	110

7월 22일~28일: 사도행전 16~21장	114
7월 29일~8월 4일: 사도행전 22~28장	118
8월 5일~11일: 로마서 1~6장	122
8월 12일~18일: 로마서 7~16장	126
8월 19일~25일: 고린도전서 1~7장	130
8월 26일~9월 1일: 고린도전서 8~13장	134
9월 2일~8일: 고린도전서 14~16장	138
9월 9일~15일: 고린도후서 1~7장	142
9월 16일~22일: 고린도후서 8~13장	146
9월 23일~29일: 갈라디아서	150
9월 30일~10월 13일: 에베소서	154
10월 14일~20일: 빌립보서; 골로새서	158
10월 21일~27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62
10월 28일~11월 3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66
11월 4일~10일: 히브리서 1~6장	170
11월 11일~17일: 히브리서 7~13장	174
11월 18일~24일: 야고보서	178
11월 25일~12월 1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82
12월 2일~8일: 요한1~3서; 유다서	186
12월 9일~15일: 요한계시록 1~11장	190
12월 16일~22일: 성탄절	194
12월 23일~29일: 요한계시록 12~22장	198

정규 안식일 모임이 없는 주에는 진도를 조정해도 좋다. 예를 들어 와드 대회, 스테이크 대회, 또는 성전 헌납식이 있을 경우, 한 주 공과에서 두 주 분량의 개요를 다룰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의 지역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이 자료에 나온 일정과 다른 날에 기념할 경우, 학습 진도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개종입니다

모든 복음 학습 및 가르침의 목표는 우리가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공부할 때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한다.(고린도후서 5:17 참조)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견해, 행동, 본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앙을 강화하고 개종이라는 기적적인 변화로 이어질 만한 복음 학습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학습은 교실을 넘어 개개인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참된 개종은 성신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성신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를 증거한다.(요한복음 16:13 참조) 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이해력을 일깨우며,

모든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계시로써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 성신은 진리를 따르고 생활하려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고, 그 방법을 속삭여 준다. 참으로, “보혜사[는] …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요한복음 14:26)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신의 동반이다. 이 목표가 우리의 선택을 주관하고,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 영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고, 그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해야 한다. 우리가 성신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기에도 합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활용하기

이 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자료는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지금까지 복음을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자료와 함께 복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을 공부하는 좋은 습관이 이미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료를 통해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 자료를 활용한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한 참조 자료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가정의 밤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개요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고, 다양한 학습 아이디어와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며, 여러분의 느낌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 역할도 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미 정기적으로 복음을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몰몬경을 읽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에서 다른 경전을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그것들과 우위를 가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신약전서를 정기적으로 배우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경전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경전 공부 시간에는 계속 몰몬경을 읽고, 가족과는 신약전서를 읽을 수 있다.(반대로도 할 수 있다.) 또는,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몰몬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영의 인도를 따라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지를 결정한다.

이 자료는 교회의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여기에 수록된 개요는 주간 읽기 일정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주일학교 반에서 가르치는 공과도 그와 똑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은 주중에 공부했던 경전 구절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경험과 생각, 질문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학교 교재와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교재에는 일 년 중 연차 대회가 열리는 두 번의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주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스테이크 대회 등을 이유로 정규 안식일 모임이 없는 주에는 가정에서 신약전서를 계속 공부하도록 한다. 교회 공과반에서는 그 주에 계획되었던 공과를 건너뛰거나 2주 치 공과를 통합함으로써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자료에 나오는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일정을 따르면 주일학교 반과 진도를 맞출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일정은 개인의 공부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지침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찾아본다

경전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가르치므로(니파이후서 11:4; 모세서 6:63 참조), 신약전서의 사건, 이야기, 가르침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보도록 한다. 구주에 대해, 또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에 짧은 기록을 해 두거나 표시를 해 본다.

영감을 주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본다

여러분은 경전에 있는 특정 단어와 문구가 마치 자신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감명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어와 문구들은 영감과 동기를 줄 것이다. 그것들을 경전에 표시하거나 학습 일지에 적어 둘 수 있다.

복음 진리를 찾아본다

(흔히 교리 또는 원리로 불리는) 복음 진리는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도 있고, 예시나 일화를 통해 암시될 때도 있다.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본다. “이 구절에는 어떤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는가?”

영에 귀를 기울인다

경전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에 집중한다. 그러한 느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전을 여러분의 삶에 비유해 본다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나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던가?” 또는 “경전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범을 나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공부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본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여러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중에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연관되거나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본다.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읽고 있는 경전 구절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주와 경전 안내서(scriptures.lds.org) 및 기타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여러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경전에서 의미 있는 단어나 어구에 표시하고 옆에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공부하면서 얻은 깨달음, 느낌, 영감을 일지에 적을 수도 있다.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에 대해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읽어 본다.(예를 들어, conference.lds.org와 교회 잡지들을 참고한다.)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눈다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며 깨달은 점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배운 대로 생활한다

경전 공부를 통해 영감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을 읽으면서 영이 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경전을 읽고 상고할 때, 영이 우리 영혼에 전하는 감미로운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에 무한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를 얽매는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2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규칙적인 가족 경전 공부는 가족이 복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가족이 함께 경전을 얼마나 많이, 또는 오래 읽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이다. 경전 공부가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간증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가족들이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 가족들이 배운 것을 나누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일상에서 가족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올 때, 신약전서에서 배운 원리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가정이 복음을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임을 기억한다. 교회 공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정에서는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가족들이 경전에서 배우도록 돕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할 때, 창의력을 발휘한다. 가족 경전 공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아이디어들을 활용한다.

의미 있는 성구를 나눈다

가족들이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의미 있게 느꼈던 성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본다

가족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각자 자신만의 표현으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

경전을 생활에 적용한다

가족들에게 경전 한 구절을 읽은 후, 그 구절을 어떻게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가족들이 복음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보낸다.

성구를 게시한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구를 선택하여 가족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집 안의 특정 장소에 게시한다. 다른 가족들도 번갈아가며 게시할 성구를 선택하게 한다.

성구 목록을 만든다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성구를 몇 가지 선택한다.

성구를 외운다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성구를 선택하고, 가족들이 그 구절을 매일 반복해서 말하거나 암기 놀이를 해 이를 외울 수 있게 한다.

실물 공과를 한다

가족이 함께 읽고 있는 장이나 절과 관련 있는 물건을 찾아본다. 가족들에게 그 물건이 경전의 가르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주제를 선택한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공부할 주제를 선정해 보게 한다. 경전 안내서(scriptures.lds.org)를 활용하여 그 주제에 관한 경전 구절을 찾아본다.

그림을 그린다

함께 경전 몇 구절을 읽고, 읽은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그려 보는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내어 서로의 그림에 대해 토론도 해 본다.

연극을 꾸며 본다

이야기 하나를 읽고, 함께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해 본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또 가족으로서 겪는 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대화해 본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매번 하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은 우리 영혼이라는 그림에 겨우 한 획을 찍는 붓 자국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랑, 금색, 갈색 물감 자국이 서로를 보완하며 인상적인 걸작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추가 자료

이 자료들은 모두 복음 자료실 앱과 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 잡지

리아호나에는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원리를 보충할 만한 이야기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책

성스러운 음악은 영을 불러오며, 교리를 인상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쇄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 외에도 music.lds.org와 LDS 음악 앱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로 된 다양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신약전서 이야기

신약전서 이야기(2005)는 어린이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교리와 이야기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복음 자료실 앱과 medialibrary.lds.org에서 이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재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교재에는 경전에 나오는 원리와 기사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교리적 해설이 실려 있다.

미디어 자료실

미술 작품과 동영상 및 다른 미디어 자료를 통해 여러분과 가족들은 신약전서에 나오는 교리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그려 볼 수 있다. medialibrary.lds.org에서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룬 성경 비디오 시리즈를 비롯해 교회가 소장한 미디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복음 주제

topics.lds.org에는 다양한 복음 주제와 관련된 필수 정보가 실려 있는데, 관련 연차 대회 말씀이나 기사, 성구, 동영상 등과 같은 유용한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게재되어 있다. 또한 “복음 주제 관련 글”을 읽어 보면, 복음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신앙에 충실함

기초적인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신앙에 충실함(2004)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참고 도서에는 복음 주제가 가나다순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다.

어린이를 위한 가르침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다음 활동들을 참고한다.

- **이야기를 듣거나 연극을 꾸며 본다.** 어린이는 경전, 여러분의 삶, 교회 역사, 교회 잡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척 좋아한다. 이야기 시간에 자녀들을 참여시킬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들은 이야기와 연관된 그림 또는 물건을 들고 있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다. 또한 연극을 꾸며 보거나, 아니면 직접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다. 자녀들이 이야기에 담긴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 **경전을 읽는다.** 경전을 많이 읽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도 경전에서 배우도록 경전 읽기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때로는 한 구절 또는 핵심 어구나 단어에 중점을 두고 이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은 짧은 경전 구절을 외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은 영을 느낄 수 있다.
- **그림이나 동영상을 본다.** 복음 원리나 경전 이야기에 관련된 그림 또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 그 자료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이 그림 또는 동영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니?”와 같이 질문할 수 있다. 복음 자료실 앱, Biblevideos.lds.org, medialibrary.lds.org, children.lds.org에서 그림과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다.
- **노래를 부른다.**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에 있는 노래는 교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 원리와 관련된 노래를 찾으려면 **어린이 노래책** 뒤쪽에 있는 주제별 색인을 활용한다. 아이들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연관 지어 보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가사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래에 맞는 율동을 해 볼 수도 있

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들을 수도 있다.

- **만들어 본다.** 아이들은 자신이 배우는 이야기나 원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 볼 수 있다.
- **실물 공과에 참여한다.** 간단한 실물 공과는 자녀가 어려운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물 공과를 활용할 때는 자녀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찾아본다. 어린이들은 공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 **역할극을 한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해 보면 복음 원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활동을 반복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이야기나 활동을 주저하지 말고 자주 반복한다. 예를 들어, 경전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방법을 몇 차례 달리할 수 있다. 경전을 읽어 주거나, 여러분의 말로 요약해 주거나,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 주거나,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도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보게 하거나, 연극으로 꾸며 보자고 할 수도 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델 파슨



12월 31일~1월 6일

우리의 학습과 관련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복음으로 더욱 깊이 개종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경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가족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찾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림으로써 여러분은 교회의 공과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도록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요한복음1:38) 여러분 역시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신약전서에서 얻게 될 것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주께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라고 약속하셨다.(마태복음 7:7) 그러므로 학습하는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

부지런히 답을 찾도록 한다. 여러분은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은 강력한 영적 경험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신성한 경전 곳곳에 나오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누가복음 18:22) 구주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구주의 충실한 제자인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진정으로 구주께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구주의 권고는 제자의 길에 새롭게 들어선 사람이든 평생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던 부자 청년에게 구주께서 주신 권고였다.(마태복음 19:16~22 참조)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온 영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변화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구주께 배우는 첫걸음은 구주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컨대, 다음 내용을 탐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가?

구주의 가르침(마태복음 6:14~15; 18:21~35 참조)_____

구주께서 삶을 통해 보여 주신 모범(누가복음 23:33~34 참조)_____

그러나 배움은 구주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그분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욱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까?_____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사랑이나 겸손과 같은 다른 복음 원리로 이 활동을 해 본다.

내 학습과 관련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르침과 행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배우는 사람은 성신께 마음을 엽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가르침,

간증하는 권능, 확신을 주는 증거를 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정신적 및 신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9~20쪽)

자신의 학습에 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나 장로의 말씀과 다음 성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본다. 요한복음 7:17, 데살로니가전서 5:21, 야고보서 1:5~6, 22, 2:17, 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4:15, 앨마서 32:27, 교리와 성약 18:18, 58:26~28, 88:118.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영감이 느껴지는가?

나는 스스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신앙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구주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와 비슷해 보일 것이다.(마태복음 25:1~13 참조)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관한 간증을 강화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배웠듯이, 개종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간증을 얻고 키우는가? 다음 성구를 상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 누가복음 11:9~13, 요한복음 5:39, 요한복음 7:14~17, 사도행전 17:10~12, 고린도전서 2:9~11, 앨마서 5:45~46. (또한 “간증”,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우리는 각자 스스로 간증을 얻어야 한다.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인 지식을 구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것이다. 다음 원리들은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방식으로 질문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신성하게 지정된 자료를 활용한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분은 성신, 경전,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신다.

2. **신앙으로 행한다.** 답을 곧바로 찾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답을 알려 주실 것을 믿으며 그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
3. **영원한 관점을 유지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의 맥락에서 질문을 살펴본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3:1~23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올해 가족이 함께 신약전서를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비유에 묘사된 땅의 종류를 실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집 근처에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가정에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마태복음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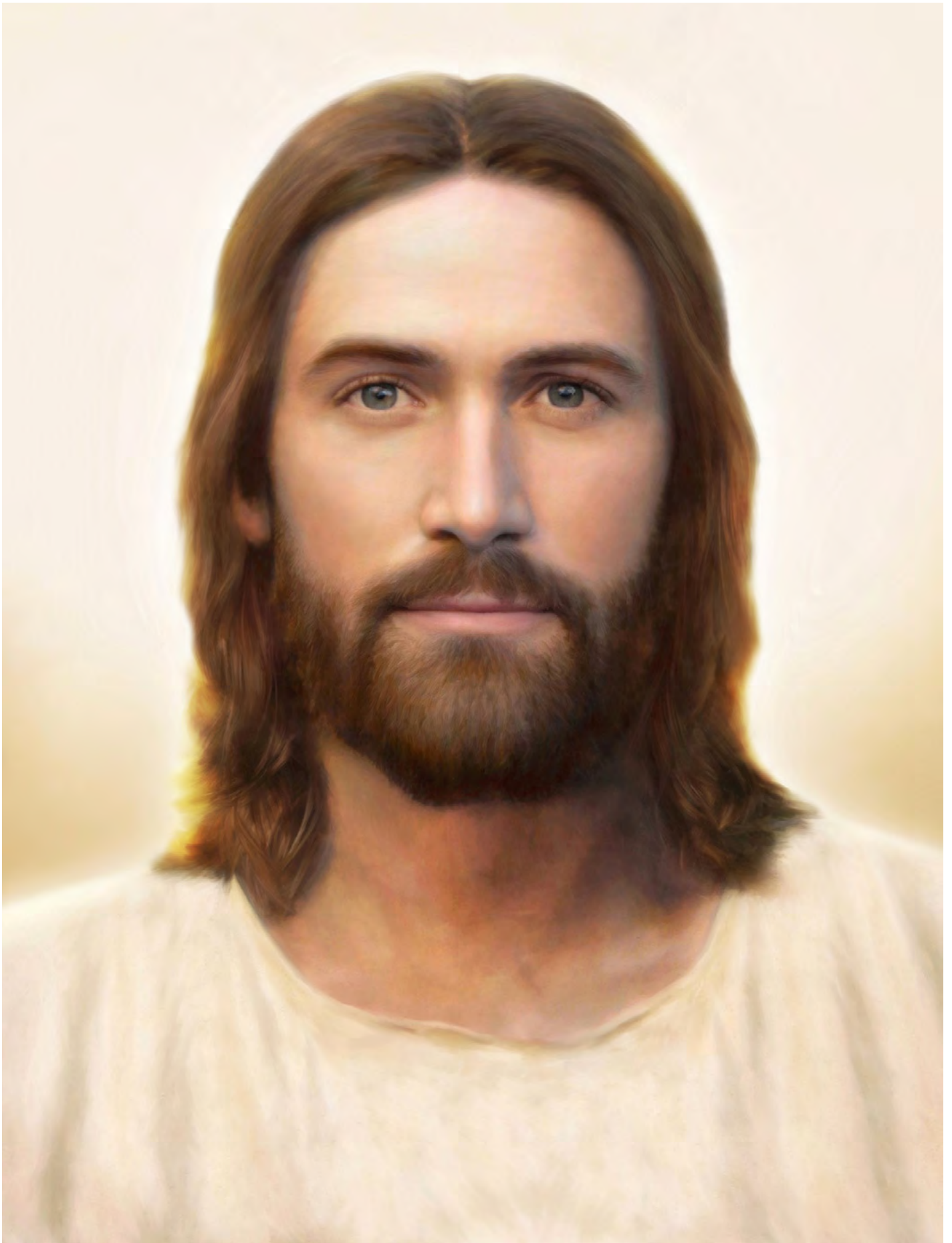
갈라디아서 5:22~29; 빌립보서 4:8

“부모와 자녀 여러분께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족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다른 일이나 활동이 아무리 가치 있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일회장단 서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연초는 가정에서 복음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을 주제로 가족 평의회를 열기에 좋은 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과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축복과 권고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목표를 되새기기 위해 집안 곳곳에 붙일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다.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교리를 찾는다. 교리는 영원불변한 진리이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참된 교리를 이해하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했다.(“어린아이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서 더욱 구주와 같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를 찾아본다.



세상의 빛, 브렌트 보럽



1월 7일~13일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받은 영적인 느낌을 기록한다. 어떤 교리적 진리들을 찾았는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겠는가? 이 개요에 나오는 학습 제안들은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필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가임기를 훌쩍 넘겨 불임 상태가 된 여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침례 요한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에 따라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필멸의 장애물을 모두 극복하고 어머니가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과 맞닥뜨릴 때마다 그들의 기적 같은 경험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복음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일깨워 주었던 다음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 그리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마태는 유대인 세리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 중 하나로 부르셨다.(마태복음 10:3; 또한 경전 안내서, “세리” 참조) 마태는 주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성역을 통해 성취되었던 구약전서의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의사였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다. 그는 구주께서 돌아가신 뒤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주이심을 증언했다. 누가는 구주의 생애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의 기록에는 여성들에 관한 일화가 더 많이 등장한다.

또한 경전 안내서, “복음서”, “마태”, “누가”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8~35

구주께서는 왜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속죄자는 불멸의 존재이면서도 죽음을 겪고, 다시 자신의 몸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주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죽을 수 있는 권능을 물려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극복할 권능을 물려받았습니다.”(“변화 속의 불변”,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4쪽)

누가복음 1:5~25, 57~80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축복을 주신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소망하던, 자녀를 갖는 축복을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나중에 주셨다. 축복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되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며, 의로운 성도들과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약속했다. “바로 오는 축복이 있고 나중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언제나 되든지 반드시 축복이 올 것입니다.”(“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가? (누가복음 1:5~25, 57~80 참조) 여러분도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축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께서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충실하게 기다린 끝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38

충실한 자는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 표에 천사와 마리아의 말을 적고(누가복음 1:26~38 참조), 그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교훈도 적어 본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	내가 찾은 교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28절)	주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마리아의 대답	내가 찾은 메시지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4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장 18~25절에는 요셉의 의로운 모범이 드러나 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험에서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3:19, 누가복음 22:42, 힐라맨서 10:4~5, 경전 안내서, “가브리엘”을 참조한다.

누가복음 1:46~55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간증했다.

누가복음 1장 46~55절에서, 마리아는 구주께서 받으신 사명의 여러 측면을 예견했다. 마리아의 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구절을 사무엘상 2장 1~10절에 있는 한나의 말과 마태복음 5장 4~12절에 있는 팔복과 비교할 때, 구주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더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영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1~17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면서, 이 계보가 요셉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가의 혈통을 나타낸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혈통이 중요했던 이유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예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예레미야 23:5~6 참조) 또한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가족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 조상들의 일화를 들려줄 수도 있다. 가족의 역사를 알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1:20; 누가복음 1:1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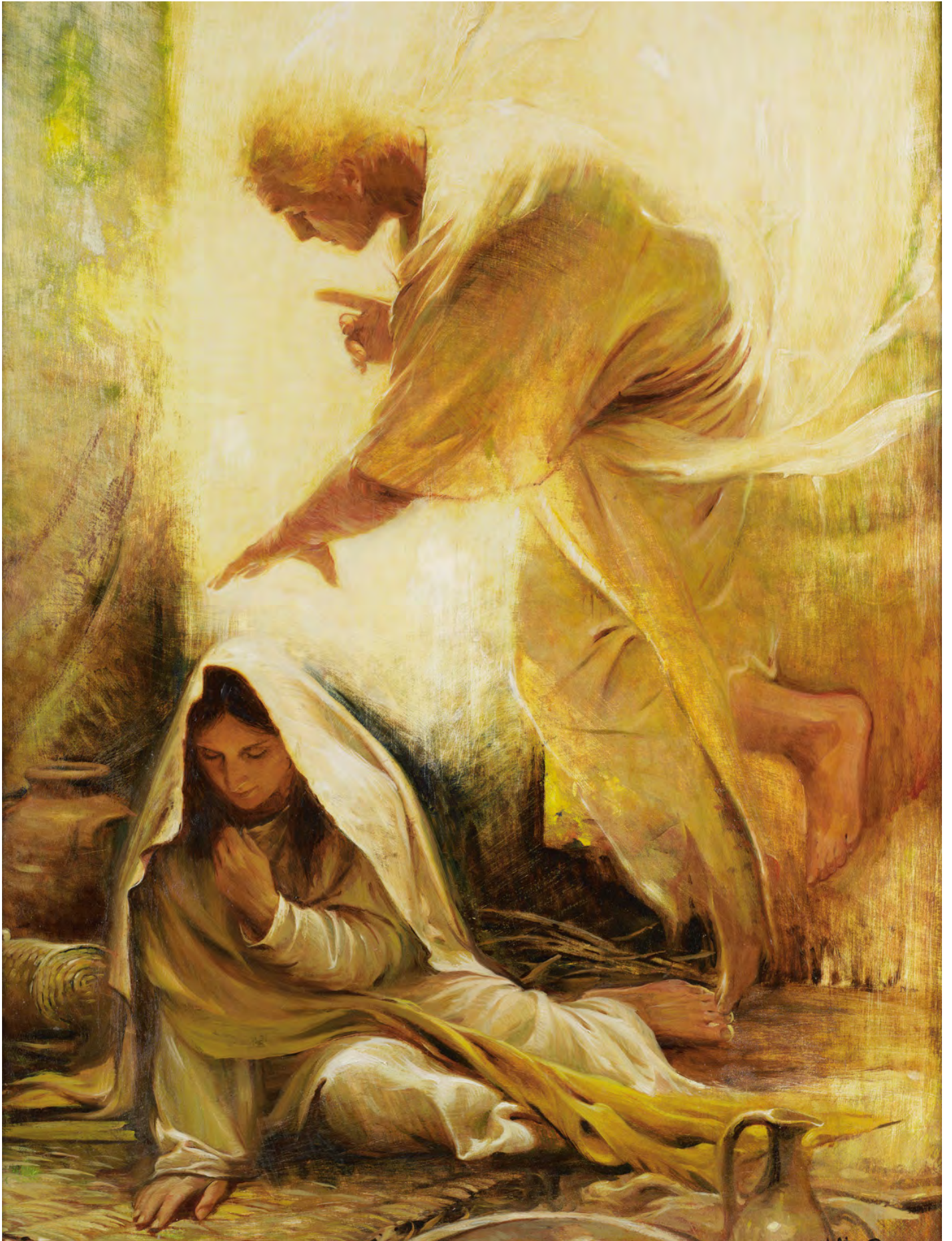
이 구절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이유로 두려움을 느꼈는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누가복음 1:37

가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신앙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누가복음 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불가능하게 보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찾아본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또 다른 예를 경전 속의 이야기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찾아 본다. 복음 그림책을 찾아보면 생각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경전을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 경전 구절을 읽고 나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라고 가족들에게 권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1쪽 참조) 가령,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부름에 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운 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월터 레인



앞드려 절하세, 다니 마리오 우드

1월 14일~20일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적인 깨달음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 본 개요에 나온 학습 제안들을 참고하면, 이들 성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부터 여느 아기와는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아기 예수가 특별했던 것은 하늘에 뜬 새 별이나 천사들이 알린 기쁜 소식 때문만이 아니었다. 국적과 직업, 배경이 다른 여러 충실한 사람들이 곧바로 그분께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권유가 있기도 전에(누가복음 18:22), 그들이 먼저 그분께 나아왔던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예수께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으며, 그분을

시기한 통치자는 그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의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겸손하고 순수하며 헌신적인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자신들이 구하던 것들을 찾았다. 그들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날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이다.(누가복음 2:10~11)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누가복음 2:1~7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요한복음 17:5)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던 분이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누추한 환경에서 태어나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을 선택하셨다. 누가복음 2장 1~7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라한 환경에 관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에서 새로 알게 된 세부 내용이나 새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헤아려 본다. 구주께서 태어나신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에 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의 탄생”(LDS.org) 동영상을 참조한다.

누가복음 2:8~38; 마태복음 2:1~12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기를 목격하고 그분을 경배했다. 마구간을 찾아왔던 겸손한 목자들, 예수님의 집으로 선물을 가져왔던 부유한 동방박사들, 성전에서 봉사하던 과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충실한 제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증거하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스도의 증인	경배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목자들(누가복음 2:8~20)	
시므온(누가복음 2:25~35)	
안나(누가복음 2:36~38)	
동방박사들(마태복음 2:1~12)	

또한 니파이전서 11:13~23, 제3니파이 1:5~21,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목자들”, “성전에 간 아기 그리스도”(동영상, LDS.org)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2:13~23

부모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린 예수를 지키라는 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위험을 경고하는 계시를 받았다. 요셉의 경험을 읽으면서 오늘날 가족들이 직면한 육체적, 영적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 이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인도를 받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된 요셉의 감정이 그려진, “첫 번째 성탄절의 정신” 동영상(LDS.org)을 볼 수도 있다.

누가복음 2:40~52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전념하셨다.

구주께서는 어린 시절에 매우 힘 있는 가르침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성전에 있던 교사들조차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누가복음 2:47)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구주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는 어린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9) 여러분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2장 40~52절과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3장 24~26절(경전 안내서)에는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보이신 모범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

조셉 스미스 역이란 무엇인가?

여러 세기가 지나는 동안 “많은 명백하고 귀한” 진리들이 상실되었기에(니파이전서 13:28; 또한 모세서 1:41 참조),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으로 성경을 개정하도록 명하셨고, 그 기록은 조셉 스미스 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후기 성도판 경전의 부록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영감역이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다. 또한, 후기 성도판 흠정역 성경에도 조셉 스미스 영감역이 각주에 실려 있다. 조셉 스미스—마태로 알려진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4장은 값진 진주에 수록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복음 주제 “성경, 틀림이 없음”,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누가복음 2장

가족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묘사된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사람이 구주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내용들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알게 된 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고 권한다. “마리아의 자장가” 또는 “성탄 축하”(어린이 노래책, 28쪽, 32쪽)를 함께 부른다. 이 노래들을 통해 구주의 탄생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누가복음 2:49

“아버지의 [일]”이란 무엇인가? (모세서 1:39 참조) 이 이야기와, 예수께서 필멸의 삶에서 행하고 가르치신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서 병 속에 넣어 둔다. 가족들이 앞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방법을 찾을 때면 병 안에 있는 쪽지를 골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각자 경험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누가복음 2:52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셨는지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각주와 경전 안내서 및 LDS.org, *신약전서 학생 교재*(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14)등과 같은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세상의 구주는 지상의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1월 21일~27일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느낌을 기록한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가? 교회 공과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성역을 행하시던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을지 궁금해 했던 적이 있는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dana엘과 같은 충실한 이스라엘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 왔다. 그들은 구주를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찾던 분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도 그들처럼 직접 “보라”라는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주를 알 수 있다.(요한복음 1:39) 우리는 경전에서 그분에 관해 읽고, 그분의 교리를 들으며, 그분의 생활 방식을 지켜보고, 그분의 영을 느낀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dana엘이 그러했듯이, 구주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더 큰 일”을 맞게끔 준비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 1:5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복음

요한은 누구였는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무리에 속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주님의 십이사도 중 한 명이 되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몇 편의 서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 사랑하시는 자”와 “다른 제자”라는 말로 지칭했다.(요한복음 13:23; 20:3)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의가 매우 컸던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머물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교리와 성약 7:1~6 참조)

또한 경전 안내서, “요한, 세베데의 아들”을 참조한다.

요한복음 1:1~5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예수 그리스도가] …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5절에서 우리는 구주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5절(경전 안내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실려 있다. 구주의 생애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전세에서 하신 일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1~1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에 관해 증언하다.

요한은 구주께서는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이]”라고 한 침례 요한의 간증 덕분에 구주를 따르게 되었다.(요한복음 1:8~9, 15~18) 그리고 요한 또한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몸소 강력히 증언하였다.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시작하며 기록한 진리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 흥미로운 것이다.(1~18절,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1~19[경전 안내서] 참조)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도입부에 이러한 진리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적어 본다. 여러분은 간증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구주를 알고 따르는 데 도움이 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 축복을 받게 될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가?

요한복음 1:12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의 아들딸이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분리되고 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은 몸소 치르신 속죄 희생과 복음 성약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방편으로 삼으시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유산을 비롯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로마서 8:14~18, 야곱서 4:11 참조)

요한복음 1:18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구약전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창세기 32:30, 출애굽기 33:11, 이사야 6:5 참조)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까?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며, 그럴 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증언하신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그분은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조셉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또한 교리와 성약 76:23 참조) 이 외에 사람이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일이 기록된 예는 다음과 같다.(사도행전 7:55~56, 요한계시록 4:2, 니파이전서 1:8, 교리와 성약 137:1~3 참조) 또한, 사람이 아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기록된 예는 다음과 같다.(마태복음 3:17, 17:5, 제3니파이 11:6~7 참조)

요한복음 1:19~23

엘리야는 누구이며,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언젠가 한 선지자가 백성 가운데로 나오리라고 한 고대 예언의 주인공이 침례 요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그가 일라이어스(엘리야의 그리스식 표기), 곧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인지를 물었다.(말라기 4:5~6 참조) 또한, 그들은 침례 요한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된 그 “선지자”냐며 물기도 했다. 요한은 자신은 그 둘 중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할 자로서 이사야가 언급한 선지자라고 말했다.(이사야 40:3 참조) 또한 경전 안에서, “일라이어스”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우리의 생활에 관한 영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10

가족들이 이 구절에서 빛에 관하여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 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가족과 함께 어두운 방에 모여 한 명씩 돌아가며 빛을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구주가 각자의 삶에 빛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그런 후 요한복음 1장 4~10절을 읽으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간증에서 깨달은 점을 더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요한복음 1:35~46

36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간증을 잘 살펴본다. 그의 간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35~46절 참조) 여러분의 가족은 이 구절에 설명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요한복음 1:45~51

나다나엘이 한 일 가운데 구주에 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간증을 얻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실물 공과를 한다. 가족들에게 함께 경전에서 발견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자고 한다. 가령, 그리스도의 빛은 초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요한복음 1:4 참조)



지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월터 레인



일리노이 나부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 톰 홀드먼

1월 28일~2월 3일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먼저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을 읽는다. 이 장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신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자신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얻은 느낌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누가는 침례 요한의 사명과, 구주가 오심으로 써 생길 결과에 관해 고대의 이사가 예언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누가복음 3:5; 또한 이사야 40:4 참조) 이 메시지는 자신은 변화할 수 없거나 변화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산처럼 변하기 어려운 존재도 평평해질 수 있다면, 분명 주님은 굽은 길을 곧게 만들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누가복음 3:4~5 참조) 회개하여 다른 사람이 되라는 침례 요한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우리도 생각과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누가복음 3:6)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가복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가는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알려진 정보가 제일 적은 사람이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의 동반자로 알려져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지시를 받아 구주의 일생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마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전 안내서, “마가”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3:1~12; 마가복음 1:1~8; 누가복음 3:2~18

회개는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큰 변화이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그들이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었는가? 그는 “회개하라”라고 외쳤다.(마태복음 3:2) 또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열매와 알곡 등을 상징으로 활용했다.(누가복음 3:9, 17 참조)

침례 요한의 성역을 다룬 기사에는 그 외에 또 어떤 상징이 등장하는가? 그것들을 경전에 표시하거나 학습 일지에 그림으로 그려 본다. 이러한 상징은 회개의 교리 및 필요성에 관하여 어떤 점을 가르쳐 주는가?

참된 회개란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전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져오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사람은 참된 회개를 통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경전 안내서, “회개”) 누가복음 3장 7~14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가? 이 권고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누가복음 3:8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3:4~11(경전 안내서)과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 그리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41쪽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3:7; 누가복음 3:7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리새인은 유대교 종파의 일원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여러 의례에 관한 행위 여부로 종교를 한정 짓는 경향이 있었다. 사두개인은 부유한 유대인 계층이며,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 두 계층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 본래 의도하는 바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그중 다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또한 마태복음 23:27, 요한복음 1:19~24, 경전 안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3:13~17; 마가복음 1:9~11; 누가복음 3:15~16, 21~22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침례를 받으셨다.

따라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된다. 구주의 침례를 다룬 이 기사에서 알게 된 점과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일어난 일을 비교해 본다.

예수께 침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있었는가?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침례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침례받았는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침례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침례받았는가?
예수께서는 왜 침례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왜 침례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침례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니파이는 구주의 침례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했다. 니파이후서 31장에서 니파이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경험한 것을 일지에 적어 본다.

또한 요한복음 1:32~33, 모사이야서 18:8~11, 교리와 성약 13:1, 20:37, 68~74, “예수님의 침례”(동영상, LDS.org)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3:16~17; 마가복음 1:9~11; 누가복음 3:21~22

성경은 신회의 일원들이 서로 다른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에는 신회의 일원이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가 나온다. 예컨대, 구주의 침례에 관한 기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신이 각기 개별적인 존재라는 교리를 뒷받침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성신은 구주께서 침례받으실 때 그분에게로 내려오셨다. 다음 경전 구절에도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 창세기 1:26~27, 마태복음 17:1~5, 요한복음 17:20~23, 사도행전 7:55~56, 교리와 성약 130:22.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이 있었다. 침례 요한에 관해 공부할 때 우리는 아론 신권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요한의 모범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 의무를 완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13:1, 20:46~60 참조)

마태복음 3:11~17; 마가복음 1:9~11; 누가복음 3:21~22

가족들에게 침례와 성신의 은사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지저분한 물건을 보여 주고 물로 직접 씻어 보게 한다. 이 활동은 어떻게 침례를 나타내는가? 그런 뒤 불이 지닌 정화 능력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 성신의 은사가 “불의 침례”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일까?(경전 안내서, “성신” 참고)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씻어 낸다.

마태복음 3:17; 마가복음 1:11; 누가복음 3:22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언제 느껴 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 경전은 계시로써 주어졌으며, 경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개인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주님은 약속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예수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 그레그 케이 올슨



2월 4일~10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5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먼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5장을 읽고, 마음에 전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본 개요에 나온 학습 제언들을 참고하면, 이 장들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특별하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녔음을 인식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시작하고자 준비하실 무렵, 사탄은 그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 했다.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누가복음 4:3, 강조체 추가) 그러나 구주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감하고 계셨다. 그분은 경전을 아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다. “모든 권위[를] 내가 네게 주리라”라는 사탄의 제안은 예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누가복음 4:6)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일생을 준비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얻으셨기 때문이었다.(누가복음 4:1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과 시련을 겪으며 거부당하는 가운데서도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지워진 일을 해 나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누가복음 4:4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4:1~2

나는 하나님과 교감함으로써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 준비한다.

예수께서는 사명을 이룰 준비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로 가셨다.(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1)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고자 준비하는데 그 일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마태복음 4:1~11; 누가복음 4:1~13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을 물리치는 본보기를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가책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죄 … 없[이]” 사셨던(히브리서 4:15) 구주조차도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직면하여 이겨 내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닥친 유혹을 아시고 그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히브리서 2:18; 앨마서 7:11~12 참조)

마태복음 4장 1~11절과 누가복음 4장 1~1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유혹을 느낄 때 도움이 될 어떤 것을 배웠는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로 정리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	나
사탄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유혹했는가? 허기를 채울 목적으로 권능을 사용한다.	사탄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유혹하는가?
예수께서 유혹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분은 금식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나아가셨으며, 경전을 아셨다.	나는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또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또한 고린도전서 10:13, 앨마서 13:28, 모세서 1:10~22, 복음 주제 “유혹”,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누가복음 4:16~32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구주께서는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말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받은 사명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셨다.(이사야 61:1~2 참조)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셨다.

유대인들은 수 세기 동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셨을 때에는(누가복음 4:21) 대부분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4장 20~30절을 읽으면서(또한 마가복음 6:1~6 참조)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가?

또한 모사이아서 3:5~12,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는 예수님”(LDS.org 동영상)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4:18~22; 누가복음 5:1~11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내가 신성한 잠재력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은 혼자서 살아갈 때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42쪽) 이런 일은 베드로를 비롯해 그가 함께 일하던 어부들에게도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물고기를 낚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마태복음 4:19; 또한 누가복음 5:10 참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숙한 경험들을 비유로 사용하셨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언제 받아 보았는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누가복음 5:11)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 드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4장 18~22절과 누가복음 5장 1~11절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4:1~2; 누가복음 4:1~2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금식을 하신 상태였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금식의 힘에 관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금식을 주제로 가족 토론을 이끌기 위해 복음 주제 “금식과 금식 헌금”, topics.lds.org를 찾아본다. 가족들에게 금식과 관련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 온 가족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함께 금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마태복음 4:3~4; 누가복음 4:3~4

사탄은 돌을 떡으로 바꿔 보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유혹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로 (누가복음 4:3; 강조해 추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왜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려고 애쓰는가? 그는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또한 모세서 1:10~23 참조)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11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시험을 당하신 후, 감옥에 갇혀 있던 침례 요한에게로 마음을 돌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옥에 갇힘을 아시고 그가 천사들을 보내시니, 보라, 그들이 와서 [요한을] 보살피니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11)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누가복음 4:16~21

마음이 다쳤거나 “자유롭게” 되어야 할 사람을 알고 있는가?(누가복음 4:18)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주께 치유받고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는가? 또한,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 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누가복음 4:18)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 “[부모나 교사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 온 마음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는 성신을 동반할 자격을 갖기 위한 주된 방법이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며, 그저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용서를 구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3쪽)



Jorge Cocco Santángelo 15



2월 11일~17일

요한복음 2~4장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2~4장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개종에 관하여 영이 가르침을 줄 것이다. 영이 속삭여 주는 것들을 기록해 둔다. 또한, 여러분은 이 개요의 학습 제언들을 통해 더 많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요한은 이 일을 “첫 표적[기적의 시작]”으로 일컬었다.(요한복음 2:11)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옳은 말이다. 그 일은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던 동시에, 기적 같은 어떤 과정의 시작, 즉 우리가 구주를 닮아 감에 따라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의 시작점을 상징하기도 한다.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변화하며, 그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음으로써 시작된다. 이 변화를 겪으면 궁극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수 있기에, “거듭[남]”이란 말보다(요한복음 3:7) 그것을 더 잘 설명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제자로서 걷는 길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가르침은, 우리가 계속 이 길에 머무른다면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영속적으로] 솟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되새겨 준다.(요한복음 4:14)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복음 2:1~11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구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화가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11절을 읽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관하여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마리아와 제자들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들은 구주께서 보이신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이 구절에서 기적에 관하여 알게 된 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요한복음 3:1~8 참조) 우물가의 여인에게(요한복음 4:3~26) 가르치신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1~21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한다.

니고데모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에 그는 조심스러운 관찰자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드러내어 예수님을 옹호했으며(요한복음 7:45~52 참조) 구주를 매장할 때는 믿는 무리와 함께하기도 했다.(요한복음 19:38~40 참조) 요한복음 3장 1~21절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부분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따르며 다시 태어나도록 영감을 주었을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거듭[남]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95쪽) 여러분이 침례받고(“물”로써 거듭남[요한복음 3:5]) 확인받은 것은(“성령”으로써 거듭남[요한복음 3:5])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은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앨마서 5:11~14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5:7, 27:25~26, 복음 주제, “구원”, topics.lds.org,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9~22쪽을 참조한다.

요한복음 3:16~1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모든 영원을 통해 크고 첫째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고 가르쳤다.(“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6쪽)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가?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의 아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찬송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이 부른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를 동영상으로 시청해 본다.(LDS.org) 성찬을 더 의미 있게 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신가?

간혹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이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약속하셨음이니.”(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4:26) 현대의 계시 또한 하나님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셨음을 가르쳐 준다.(교리와 성약 130:22~23 참조; 또한 창세기 5:1~3; 히브리서 1:1~3 참조)

요한복음 4:7~26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생수를 주신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복음은 어떻게 생수와 같은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양분이 되는 생수이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가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4:21~24 참조)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한복음 4:23)

또한 경전 안내서, “예배”, 딘 엠 데이비스,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3~9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복음 2~4장

이번 주에 가족과 함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출생, 바람, 물, 음식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8~22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정을 더럽힐 법한 것들을 피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처럼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스러운 장소가 되도록 가족이 함께 멀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요한복음 3:1~6

가족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지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과정인 임신과 탄생의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거듭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 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 보았는가?

요한복음 3:16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설명하듯 이 구절을 각자 자신의 말로 풀이해 보자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요한복음 4:5~15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생수에 빗대어 말씀하심으로써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가족들에게 물 한 잔을 들어 보이며 물의 특징을 말해 보자고 한다. 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한복음 4:14)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상징을 찾아본다. 경전에 나오는 사물, 사건, 행위, 가르침은 영적인 진리를 상징할 때가 많다. 이러한 상징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주께서 개종을 거듭남에 비유하신 것 등이 그 예이다.



생수, 사이먼 듀이



신성수화, 호르헤 토크코

2월 18일~24일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전해지는 느낌에 집중하고, 그 느낌을 학습 일지에 기록한다. 본 개요를 참고하면, 이 장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원리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님의 성역이 이 시점에 이르자, 그분의 가르침은 당대 사람들이 흔히 듣던 것과는 다르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박해받은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가 옳다고 느꼈다. “눈에는 눈”, “네 원수를 미워하라”

등은 더 높은 율법을 따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받은, 더 낮은 율법이었다.(마태복음 5:38, 4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더 낮은 율법을 성취하고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으며(제3니파이 15:2~10 참조), 더 높은 율법은 언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게끔 마련된 것이었다.(마태복음 5:48)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5:1~12; 누가복음 6:20~26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같은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부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축복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지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12절과 누가복음 6장 20~26절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

각 절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이나 느낌이 떠올랐는가? 이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구절들에 묘사된 자질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또한 요한복음 13:17, 제3니파이 12:3~12, “산상수훈: 진복팔단”(동영상, LDS.org)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5:13

왜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셨는가?

오랫동안 소금은 보존하고, 맛을 내며, 정화하는 용도로 쓰여 왔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금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다. 소금은 고대에 모세 율법에 따라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던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레위기 2:13; 민수기 18:19 참조) 소금은 맛을 잃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아무 쓸 데[가] 없어”진다.(마태복음 5:13) 이런 일은 소금이 다른 성분과 섞이거나 다른 성분에 오염될 때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 때문에 생기는 영적 오염을 피함으로써 우리의 “맛”을 지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복음을 나누거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하고 정화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3:9~10 참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태복음 5:13)

마태복음 5:17~48; 누가복음 6:27~35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대체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마태복음 5:20 참조),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생각과 느낌까지도 드높이는,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다. 더 높은 율법에서는 마음과 영혼, 생각 등 더 많은 면이 요구된다.(마태복음 22:37 참조)

마태복음 5장 21~48절과 누가복음 6장 27~35절을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한 행위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표현되어 있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드높이시고자 가르치신 율법에서 요구된 행위를 모두 표시해 본다.

가령 마태복음 5장 27~28절에서, 예수께서는 생각을 통제하는 책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하면 머리와 가슴에 일어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또한 “산상수훈: 더 높은 율법”(동영상, LDS.org) 참조한다.

마태복음 5:4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시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완료하다’를 뜻하는 *텔레이오스(teleios)*라는 말에서 번역되었습니다. ... 이 동사의 부정사형은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다, 완전하게 성장한 상태에 이르다,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의 *텔레이오노(teleiono)*입니다. 이 단어는 ‘실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멀리 있는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을 주목하십시오. ...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능히 감당할 수 없나니, 그런즉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교리와 성약 67:13]

온전함을 향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은 몹시 어렵고 끝이 없는 듯 보이더라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온전함이 임박했습니다. 온전함은 부활한 뒤에,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86, 88쪽)

또한 빌립보서 3:13~15, 베드로후서 1:3~11, 요한계시록 3:21~22, 제3니파이 27:27,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76:69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5:1~9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장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한두 가지 원리에 집중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가르침은 무엇인가?(마태복음 5:21~25, 38~44 참조)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5:14~16

가족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내는 것들을 찾아본다. 빛을 가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마태복음 5:14) 여러분 가족 중에는 누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해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3:9~10 참조)

마태복음 5:43~44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가정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관찰한다. 자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르침을 전할 매우 효과적인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하루 동안 자녀가 하는 말이나 질문 역시 가르침을 전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6쪽 참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14)



해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제임스 티소

2월 25일~3월 3일

마태복음 6~7장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기 바라시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품으며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6~7장을 읽으면서 그러한 영감에 집중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

산상수훈은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강론 중 하나이다. 이 강론에서 구주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들의 백합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등 풍부한 심상을 비유로 들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단순히 아름다운 담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제자들을 향한 구주의 가르침에 담긴 힘은,

특히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은 말 이상의 것이 된다. 즉,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처럼 세상의 바람과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삶의 확실한 기초가 된다.(마태복음 7:24~25 참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6~7장

나는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6~7장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 가운데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 느낌을 기록해 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6:1~4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더 염려해야 한다.

마태복음 6~7장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다. 현재 삶에서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주제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마태복음 6~7장에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기도이다. 잠시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해 본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마태복음 6~7장에 나오는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영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6:9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말하며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6:10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표현하며 기도해야 한다.

산상수훈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이번에는 되풀이되는 주제나 메시지 가운데 특히 어떤 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지 찾아본다. 찾은 것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학습 일지에 기록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마태복음 6:7

기도할 때 “[헛되게]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보통 “[헛되게] 중언부언”하는 것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나 헛되다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기도할 때 “[헛되게] 중언부언”하는 것은 신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엘머서 31:12~23 참조)

마태복음 6:9~13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낭송하지 않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언부언’을 피하고[마태복음 6:7]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6:9] 이처럼 주기도문은 따라야 할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일 뿐 외우고 반복해서 암송해야 할 문장은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꾸준히 악을 물리치고 의롭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교훈”,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6~47쪽)

마태복음 7:1~5

나는 의롭게 판단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은 아예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장의 다른 절을 포함하여) 경전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에게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셉 스미스 역-마태복음 7장 2절을 읽어 본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의로운 비판”을 하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또한 “남을 비판함”, *신앙에 충실함*, 52~53쪽과 린 지로빈슨, “의로우신 재판장”,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6~98쪽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7:21~23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알아 간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문구는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문구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신, 21~22절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느끼는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2~10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6~7장

동영상 “산상수훈: 주기도문”과 “산상수훈: 하늘의 보화”를 시청하는 것은(LDS.org) 가족과 함께 마태복음 6~7장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동영상을 보면서 경전을 읽어 나가다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는 방법으로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며칠에 걸쳐 이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한다.

마태복음 6:5~13

구주께서 기도하신 방식을 통해 기도에 관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을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향상하기 위한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을까?(또한 누가복음 11:1~13 참조)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

마태복음 6:33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1~5

남을 판단하는 것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티와 보를 나타내는 작은 나뭇 조각과 큰 나뭇 조각을 활용해 본다. 토론 중에 *신앙에 충실함* 52~53쪽에 있는 “남을 비판함” 항목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태복음 7:24~27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구주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모래 위와 바위 위에 물을 부어 보게 한다.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영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며 깨달은 원리를 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번 주에 읽은 부분에서 배운 원리를 가족이나 교회 공과반의 반원들과 나누도록 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델 파슨



그의 날개 안에서 치유하시라, 존 맥너튼

3월 4일~10일

마태복음 8~9장; 마가복음 2~5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8~9장과 마가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성신이 주시는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이 받은 느낌과 함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우리는 신약전서를 읽을 때, 열병에 걸린 여인부터 숨을 거둔 소년에 이르기까지 구주께서 온갖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 주신 많은 기사를 보며 큰 감흥을 느낀다. 이렇게 구주께서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신 기적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고통과 불완전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의심 많은 서기관을 향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가복음 2:10) 그러므로 병 고침을 받은 눈먼 자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구주께 치유받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가복음 5:34)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8~9장; 마가복음 2장; 5장

구주는 연약함과 병고를 치유할 수 있으시다.

경전의 이 부분에는 구주께서 기적으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치유에 관해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본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신앙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구주에 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기적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가?

- 나병 환자(마태복음 8:1~4)
- 백부장의 하인(마태복음 8:5~13)
- 베드로의 장모(마태복음 8:14~15)
- 두 명의 맹인(마태복음 9:27~31)
- 중풍병자(마가복음 2:1~12)
- 귀신 들린 사람(마가복음 5:1~20)
- 아이로의 딸(마가복음 5:22~23, 35~43)
- 혈루병에 걸린 여인(마가복음 5:24~34)

또한 달린 에이치 옥스, “병 고침”,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7~50쪽을 참조한다.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조셉 브릭키(하인리히 호프만의 작품을 본떠 그린 그림)

마태복음 8:5~13; 마가복음 5:24~34

자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집으로 구주를 모시기에는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 유대인 사회에서 외면당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두 사람을 모두 축복하셨다. 이 두 기사에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마태복음 8:18~22; 마가복음 3:31~3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삶에서 최우선에 둔다는 뜻이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설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더라도 말이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구주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왜 제자들은 기꺼이 구주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 여러분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누가복음 9:57~62 참조)

마태복음 8:23~27; 마가복음 4:35~41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져다줄 권능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간청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도 이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었던 적이 있는가?

마가복음 4장 35~41절에는 네 가지 질문이 나온다. 각 질문을 찾아보고, 각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삶의 고난에 맞서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본다.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구주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가?

마태복음 9:1~13; 마가복음 2:15~17

나는 참된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내 믿음을 수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관행을 비판할 때 우리는 때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9장 1~13절과 마가복음 2장 15~17절을 읽으면서, 비난하는 자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구주의 대응을 찾아본다. 비판과 대응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적어 둔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식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는가? 복음의 원리나 교회의 관행을 옹호해야 할 때 주님의 모범을 따르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마태복음 9:1~8

회개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다.

사람들이 구주께 중풍 병자를 데려오자, 당연히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육신을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셨다.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다. 그는 육신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안심하라”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따를 수 있었다.(마태복음 9:2) 여러분은 언제 용서받고 기쁨을 느꼈던 경험을 해 보았는가?(또한 엘마서 36:18~24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구주의 성역에 관하여 꾸준히 배울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8~9장; 마가복음 2장; 5장

이 부분에 설명된 기적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와 관련된 그림을 몇 가지 찾아본다.(또한 복음 그림책 또는 LDS.org 참조) 가족들에게 (가능하다면 그림을 사용해서) 그중 한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거기서 배운 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이 직접 목격했거나 현대 교회 역사에서 읽어 본 기적의 예를 몇 가지 들려준다.

마태복음 9:10~13

구주께서 소외당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신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마태복음 9:36~38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복음을 나눌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구주의 간청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단순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치우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하면 훨씬 오래 걸릴 일을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음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4:35~41

여러분의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이 기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가족과 함께 39절을 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에 구주 덕분에 평화를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항상 열린 태도를 유지한다. 가족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이나 염려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 준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6쪽 참조)



그리스도와 중풍병자, 제이 커크 리처즈



3월 11일~17일

마태복음 10~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7장; 11장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마태복음 10~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7장과 11장을 읽으면서, 성신께서 주시는 느낌을 적어 둔다. 그 느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록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병에서 낫고 싶어 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육신의 질병 이상의 것을 보셨다. 연민에 가득 찬 그분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마태복음 9:36)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태복음 9:37) 그분은 열두 사도를 부르시어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가르치고 봉사하도록 내보내셨다.(마태복음 10:1, 6)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일꾼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십이사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있다.(마태복음 10:7)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0장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일을 할 권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래 사도들에게 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처럼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서 그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고린도후서 6:1~10; 교리와 성약 121:34~46 참조)



오늘날 십이사도는 주님의 사업을 행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는 부분을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에 관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다음과 같은 표를 활용하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나에게 떠오른 생각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맡은 일에 필요한 권능을 주실 것이다.

또한, 신앙개조 제6조와 경전 안내서, “사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도록 십이사도를 부르시는 예수님”(동영상, LDS.org)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0:17~20

내가 주님의 일에서 봉사할 때, 그분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영감으로 알려 주실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자신들의 신앙에 관해 의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셨다.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들 또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영이 알려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은 살아오는 동안 간증을 하거나 축복을 주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신성한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거나 자신의 일지에 기록한다.

또한 누가복음 12:11~12, 교리와 성약 84:85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0:34~39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분명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약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으므로 소중한 관계들을 희생해야 했으며,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기에,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굳게 자리 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Finding Your Life,” *Ensign*, Mar. 2016, 28)

구주를 따르기 위해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될 것을 각오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마태복음 10:39)

마태복음 11:28~30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내게 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짐 진 자들이다. 짐은 우리의 죄와 실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로 힘겨워하든지, 예수께서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짐을 덜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또한 모사이야서 24장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명어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8쪽)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숙고해 본다. “나는 어떻게 성약을 통해 나를 구주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명어를 함께 메는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점에서 구주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운가?”

읽는 동안 또 어떤 질문이 떠올랐는가? 그 질문들을 기록해 두고, 일주일 동안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본다. 앞서 언급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서도 그중 몇몇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7:36~50

죄를 용서받을 때, 구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깊어진다.

구주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하신 이 기사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시몬과 같았던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과 사랑을 보였던 여인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구주께서 여인에게 보여 주신 친절과 자비를 언제 경험해 보았는가? 어떻게 용서가 구주를 향한 사랑을 굳건하게 하는지에 관해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0:40

가장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족은 현대 사도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그들의 권고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가?

마태복음 11:28~30

가족들이 이 부분에 있는 구주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도록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보되, 처음에는 혼자서 해 보고 다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해 본다.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을 사용하면 멍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10~13; 마가복음 2:23~28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2:12) 구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가?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영에 귀 기울인다.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에 집중한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그러한 느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



키틀랜드의 첫 번째 성당, 덴버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의 명예를 메[라.]"(마태복음 11:29)



3월 18일~24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13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13장을 읽으면서, 이 비유에 담긴 구주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비유라고 하는 간결한 형태의 이야기에는 구주께서 전하신 가장 인상적인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히 평범한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유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신약전서에 최초로 기록된 비유 중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마태복음 13:3~23 참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권유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또한 그는 더 큰 풍성함을 갖게 되리라.”(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13:10) 그러므로 구주의 비유든, 구주의 가르침이든 그것들을 공부하려고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좋은 땅”에(마태복음 13:8)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잘 자라 우리와 우리 가족을 풍성하게 축복할 결실을 맺도록 말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지상에 있는 하늘 왕국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가리킨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전 안내서,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3:3~23; 누가복음 8:4~15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8절을 18~23절의 해석과 연결지어 보면 좋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면에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가시떨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누가복음 13:34, 모사야서 2:9, 3:19, 엘마서 12:10~11, 32:28~43과 델린 에이치 옥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2~35쪽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3:24~35, 4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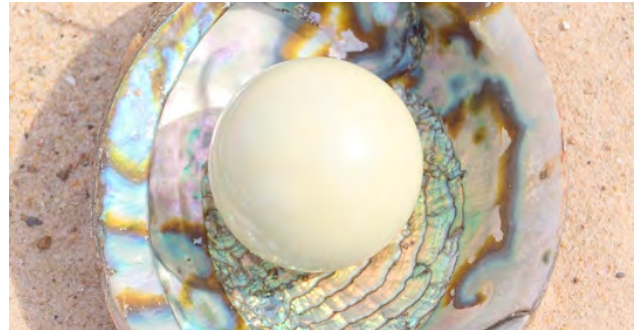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분 교회의 성장과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후기 교회의 성장과 운명이 묘사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93~303쪽)* 이러한 비유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서 적어 본다.(이 비유 중 몇 가지에 관한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을 참고할 수 있다.)

- 밀과 가라지(13:24~30, 36~43):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악인과 의인은 함께 자랄 것이다.*
- 겨자씨(13:31~32):
- 누룩(13:33):
-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13:44~46):
- 그물(13:47~50):
- 집주인(13:52):

비유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후기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는 사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비유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는가? 그러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것인가?”

또한 경전 안내서 “비유”를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진 진주”이다.(마태복음 13:46)

마태복음 13:24~30, 36~43

의인들은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악인들 속에서 자라야 한다.

이 비유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으로 그려서 마태복음 13장 36~43절과 교리와 성약 86편 1~7절에 있는 해석에 붙여 둘 수 있다. 가라지는 “독이 있는 잡초[로,] 다 자라기까지는 밀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경전 안내서, “가라지”) 이 비유에 담긴 어떤 진리가 세상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가?

누가복음 8:1~3

“어떤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구주께 봉사했는가?

“여제자들[은] 예수님과 십이사도들과 함께 여행하며 [예수]께 영적으로 배우고 현세적으로도 봉사했다. ... 이 여성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역을 통해 복음의 기본 소식과 그분의 치유 권능에서 오는 축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가진 것을 내어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겼다.”(*내 왕국의 딸들*[2011], 4쪽) 또한 구주를 따랐던 여성들은 그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했다.(린다 케이 버튼, “확신에 찬 여성”,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2~15쪽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구주의 성역에 관해 공부할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3장

가족이 함께 구주께서 전하신 비유를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상황을 활용하여 천국(교회)에 관한 똑같은 진리를 비유로 표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3:3~23; 누가복음 8:4~15

우리 마음과 가정에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마태복음 13:23)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가족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각기 다른 방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맞는 활동을 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3:13~16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가령, 가족 한 명의 귀를 막은 채 조용한 소리로 마태복음 13장 13~16절을 읽어 본다. 그 가족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되는가?

마태복음 13:44~46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일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누가복음 13:11~17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사람들을 속박에서 구할 수 있을까?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성구를 암기한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특히 의미 있는 성구를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그 구절을 외워 보자고 한다. 리차드 지스콧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구를 암기해 두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든든한, 영원한 친구를 둔 것과 같을 것입니다.”(“경전의 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쪽)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조지 소퍼



그들을 먹이라, 호르헤 록코

3월 25일~31일

마태복음 14~15장; 마가복음 6~7장; 요한복음 5~6장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15장, 마가복음 6~7장, 요한복음 5~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진리를 찾아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이 기사들은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내 삶을 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느낌을 기록한다.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던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안전한 배에서 뛰어나려 했던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시다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어쩌면 이 점을 이해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 몸소 훌륭한 일을 행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예수께서 하신 요청은 이것이었다.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베드로는 이미 그 권유를

받아들였지만, 다시 한 번 기꺼이 그 권유에 응하고자 했다. 비록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할지라도 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 중에 배에서 내리라고 하거나 수천 명을 먹여야 하니 변변찮은 빵이라도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 그분의 요청은 때로 놀랍거나 두려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내려놓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행사하여 그분을 따른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복음 5:17~47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각 자녀의 관계는 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이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영감 어린 본보기를 제시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47절을 읽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하거나 적어 본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셨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을까?

또한 요한복음 17장과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3쪽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4:16~21; 마가복음 6:33~44; 요한복음 6:5~14

구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나의 자그마한 헌물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

가정과 여러 인간 관계, 사회 등 주위의 필요 사항을 다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본 적이 있는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 상황에서 예수께서 굶주린 오천 명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을 것이다.(마태복음 14:21 참조) 이어서 일어난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치는 작은 봉사로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분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들이는 노력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본다.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다를 것 없는 은사를 지닌 여러 이름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않고서도 말 그대로 수천 명을 먹이며 자신의 부름과 봉사를 영화롭게 합니다.”(“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5쪽)

마태복음 14:22~33; 마가복음 6:45~52; 요한복음 6:15~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다.

마태복음 14장 22~23절, 마가복음 6장 45~52절, 요한복음 6장 15~21절에 묘사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 본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본다. 이 구절들에 있는 구주의 말씀과 행동은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또한 니파이전서 3:7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권고를 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구절들 중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도록 용기를 주는가?

요한복음 6:22~71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어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이튿날, 그분을 따르던 자들은 그분을 보고 음식을 더 얻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적인 양식, 곧 “생명의 떡”을 대신 권하시자 그들은 실망하여 화를 내기까지 했다.(요한복음 6:48) 많은 이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다.(요한복음 6:60)

구주나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거나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본다. 특히 68~6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잘 읽어 본다. 여러분이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생의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한복음 6:68)

또한 엠 러셀 벨라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0~92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4:16~21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도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오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지 상상해 본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취해 왔는가?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 여러분을 어떻게 쓰셨는가?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마태복음 14:22~33

가족과 함께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을까? 왜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배에서 내릴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자신이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에도 신앙을 나타내 보였는가? 이따금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가?

요한복음 5:1~16

가족들에게 이 구절에 나오는 “나았[다]”, 즉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어떨 때 쓰였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분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28~58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준 후, 빵을 비롯한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 토론한다. 그런 후 다음 구절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칭하신 이유를 찾아본다.(요한복음 6:35)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자신만의 영적인 깨달음을 구한다.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공부할 때, 개요에 나오는 경전 구절만 한정해서 다루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두신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개요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찾아본다.



풍랑에 맞서, 리즈 레먼 스윈들



변형, 칼 하인리히 볼프호르

4월 1일~14일

마태복음 16~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앞으로 2주 동안 마태복음 16장 15~17절에 있는 베드로의 간증과 함께, 연차 대회에서 듣게 될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가? 그분께서 행하신 익히 알려진 기적들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그분이 힘 있는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나 여러 방법으로 고대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어떠한가? 사실, 그들이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분별”하고 받아들여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마태복음 16:1~4 참조)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구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전하신 가르침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확고한 간증을 전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살과 피”, 곧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간증은 “하늘에 계신 … 아버지”께서 그에게 밝혀 주신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주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내린 계시를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종들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계시의 반석 위에서 그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복음 16:15~19)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6:13~17; 누가복음 9:18~2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계시에서 비롯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답과 다를 것이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마태복음 16:13~15 참조)

여러분은 구주에 대해 어떤 간증이 있으며, 어떻게 그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마태복음 16장 15~17절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간증을 강화해 주는가? 간증과 개인적인 계시에 관하여 더 배우고 싶다면 다음 성구를 공부해 본다. 요한복음 15:26, 고린도전서 12:3, 니파이후서 31:18, 앨마서 5:45~48, 교리와 성약 8:2~3.

마태복음 17:1~9; 마가복음 9:2~10; 누가복음 9:28~36

변형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다(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 사도들에게 신권 열쇠를 부여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열쇠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었다.(경전 안내서, “변형” 참조) 이 열쇠는 우리 시대에도 회복되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마태복음 16:13~19; 17:1~9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신권 열쇠이다.(마태복음 16:19)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이다. 신권 열쇠의 행사는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관리한다.(교리와 성약 65:2, 81:2, 124:123 참조)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관할 구역 내의 교회를 감리하고 지도하는 권리가 있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



“천국 열쇠”는 신권 열쇠이다.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주어진 신권 열쇠는 오늘날 회복되었다.(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총관리 역원, 성전 회장,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정원회 회장.

또한 닐 엘 앤더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95쪽과 *신앙에 충실함* 101~105쪽, 그리고 “신권 열쇠: 신권 열쇠의 회복”(동영상, LDS.org)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7:14~21; 마가복음 9:14~29

더 큰 신앙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의 신앙부터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뜻 믿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이 낮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신앙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의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의 신앙이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 기적에 관하여 읽을 때, 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현재의 신앙을 기반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을 강화해 주었던 경전 구절, 연차 대회 말씀, 경험 등을 모아서 적어 본다.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9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6:13~29; 17:1~9

자녀들에게 신권 열쇠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자동차의 문이 잠겨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일화를 들려준다. (“신권 열쇠와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29~32쪽 참조) 자녀들에게 열쇠를 사용하여 집의 문이나 차 등을 열어 보라고 한다. 교회 회장의 사진을 보여 주며, 그 사람도 베드로처럼 모든 신권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마태복음 17: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선지자들은 산을 움직였다.(야곱서 4:6; 모세서 7:13 참조) 리처드 시 에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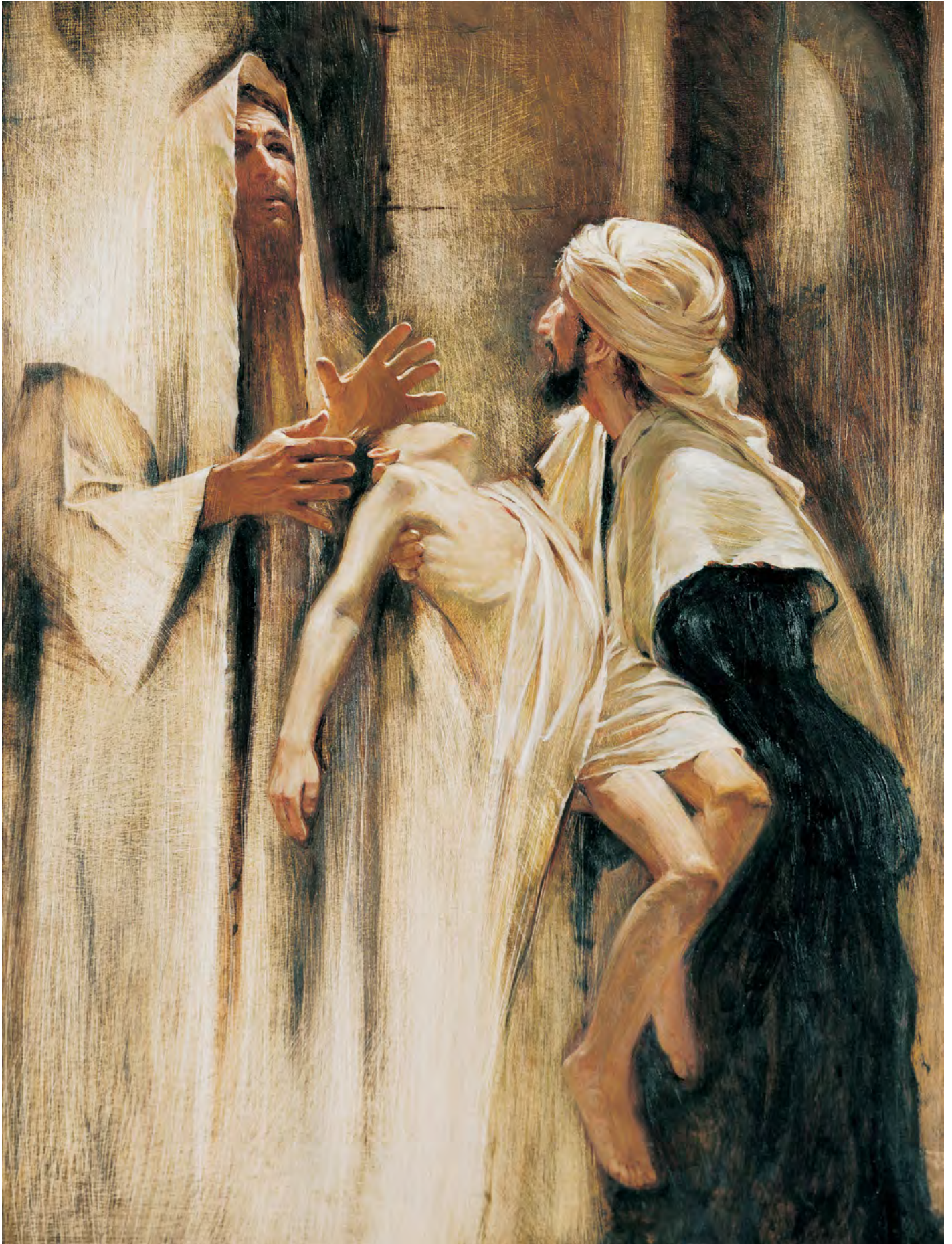
감독의 다음 간증은 이 구절을 여러분의 가족과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으로 의심과 절망이라 부르는 산이 옮겨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낙관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죄라는 산이 회개와 용서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앙으로 고통의 산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33쪽) 우리는 삶에서 어떤 산을 옮겨 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산들을 옮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누가복음 9:61~62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인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녀들을 모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이 노력하는 데 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7쪽)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월터 레인



4월 15일~21일

부활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개요에 나와 있는 구주의 부활에 관한 간증을 읽을 때, 성신에게서 오는 느낌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

느낌을 기록한다.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 동안 그분의 곁에 있던 많은 유대인은 유월절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모여 이스라엘 집이 애굽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다. 가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조상의 집을 지나쳐 갔다는 멸망의 천사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상징이 가득한 행사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죽음, 부활을 통해 곧 자신들을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자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있었다.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온 세상에 증언해 왔다.(고린도전서 15:3~4)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21~2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죄와 죽음, 시련과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권능이 있으시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주의 속죄를 통해 얻는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에 대한 기록을 매일 읽어 보는 것이다.(아래에 나오는 일정표에 따라 읽을 수 있다.) 이 장에서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관해 어떤 것을 배웠는가? 시련을 견디고 약점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 일요일: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심(마태복음 21:6~11)
-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마태복음 21:12~16)
- 화요일: 예루살렘에서 가르침(마태복음 21~23장)
- 수요일: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심(마태복음 24~25장)
- 목요일: 율월절, 겐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심(마태복음 26장)
- 금요일: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매장(마태복음 27:1~61)
- 토요일: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놓여 있었음(마태복음 27:62~66), 그분의 영은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심(교리와 성약 138장)
- 일요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마태복음 28:1~10)



최후의 만찬, 칼 하인리히 블로흐

마태복음 28:1~10; 누가복음 24:13~35; 요한복음 20:19~29;
고린도전서 15:1~8, 55

여러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상해 본다. 그들은 그분의 권능을 증언해 왔으며, 그 가르침이 참됨을 느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 있었다.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몇몇 제자들에게는 신앙의 시련이었을 수도 있지만, 곧 그들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다.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던 사람들의 기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배웠는가? 마태복음 28:1~10, 누가복음 24:13~35, 요한복음 20:19~29, 고린도전서 15:1~8, 55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한 경험을 주의깊게 살펴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대한 다른 기사는 제3니파이 11장, 몰몬서 1:15, 이더서 12:38~39, 교리와 성약 76:19~24, 110:1~10, 조셉 스미스—역사 1:15~17에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해 준 기록은 어떤 것인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이들도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마태복음 27:52~53; 제3니파이 23:9 참조) 이러한 사건이 성경과 몰몬경에 모두 기록된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를 참고한다.(동영상, LDS.org)

베드로전서 1:3~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과 기쁨을 주신다.

폴 바이 존슨 장로의 딸인 엘리사는 말기 암으로 고통받으며 많은 수술을 받았으나,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 3~11절에서 말한 “산 소망”을 몸소 보여 주는 삶을 살았다. 존슨 장로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부활절 기간에 쓴 편지를 나누었다. “부활절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한다. 언젠가 나는 병 고침을 받아 완전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 안에 아무런 쇠붙이나 플라스틱도 없을 것이다. 또 언젠가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 아름다운 내세를 참으로 믿기에 기쁘기 한량없다.”(“다시는 사망이 없고,”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1쪽)

베드로전서 1장 3~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단어나 문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언제 그러한 희망을 느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희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한 엘마서 27:28, 36:1~24, 제3니파이 9:11~17, 모로나이서 7:40~41을 참고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Mormon.org

Mormon.org/easter의 “부활절 주간”에는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 동안 각 요일별로 일어난 사건과 시간표가 담겨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해당 요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 구주께서 그날 하신 일을 읽어 보거나, 구주께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경전 구절을 읽어 본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에 있는 경전 목록 참조)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책

이번 주 동안 구주의 속죄와 부활에 관한 노래를 부르되, 그중 잘 모르는 곡들도 함께 불러 보면 좋을 것이다.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의 주제별 분류에서 “속죄”, “부활절”, 혹은 “부활” 등 참조) 가족들이 노래를 익히도록 돕기 위해 가사에 맞는 그림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가족과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또한 LDS.org 참조)을 읽고, 이 간증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부활절 메시지를 각자 하나씩 선택하게 한다. 그것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나 현관문, 또는 창문에 붙여 둘 수도 있다.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한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경전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것이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스스로 기억할 방법을 찾으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째마녀, 아담 아브람



선한 사마리아인, 덴 버

4월 22일~28일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0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0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성신이 전하는 고요한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가르침과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신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

여러분은 주님께 질문을 드린 후에,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나. 천국에서 누가 큰 존재입니까? 어린아이이나. 죄를 범한 자를 일곱 번 용서하여 주면 충분합니까? 아니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0:29~37, 마태복음 18:4, 21~22 참조) 여러분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누가복음 10:29) 진정으로 주님께 배우고자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8:21~35

주님께 용서받고자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사람을 일곱 번 용서하겠다고 한 베드로의 제안이 매우 관대하게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더 높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는 그분의 대답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태도를 가르치신 것이었다.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느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자비와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칠십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저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악을 묵인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 우리를 해친 이웃을 용서해야 하지만, 우리는 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용서를 통해 원한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2쪽)

또한 topics.lds.org에서 복음 주제 “용서”를 참고한다.

누가복음 10:1~20

칠십인은 누구인가?

구약 시대의 방식에 따라(출애굽기 24:1; 민수기 11: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십이사도 외에도 “따로 칠십인을 세우사” 그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의 사업을 돕게 하셨다. 이 방식은 회복된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칠십인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십이사도의 사명을 돕도록 부름을 받는다. 칠십인은 정원회로 조직된다. 처음 두 정원회의 회원들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성별받으며, 나머지 정원회 회원들은 지역 칠십인으로 성별받는다. (또한 교리와 성약 107:25~26, 33~34, 97 참조)

누가복음 10:25~37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시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음을

기억한다. 그 질문을 엄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읽어 본다. 어떤 대답을 찾았는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간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후손들로,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방인과 피를 섞음으로써 부정하게 되고 배도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 가려고 수 킬로미터를 돌아서 가곤 했다. (또한, 누가복음 9:52~54, 17:11~18, 요한복음 4:9, 8:48 참조)

왜 주님께서서는 이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본보기로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을 택하셨을까? 이 비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자비를 보이도록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또한 모사이야서 2:17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동영상, LDS.org)를 참고한다.

누가복음 10:38~42

우리는 영생으로 이끄는 결정을 함으로써 “좋은 편”을 선택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보니 디 파킨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제[입니다]. …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던 반면 마르다는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 예수님은 마르다의 염려를 일축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초점을 재조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초점은 무엇일까요? … 필요한 한 가지는 영생을 택하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8 참조]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사랑을 선택함: 이 좋은 편”,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4~105쪽)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권고를 여러분의 방식대로 표현하여 요약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일정을 점검한다. 여러분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한” 일이 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0장

이 장들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관련된 어떤 찬송가를 가족들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찬송가 182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를 부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찬송가도 많이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 구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1~11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모사이야서 3:19 참조)

누가복음 10:25~37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더 와닿도록 할 수 있을까? 무대 복장을 하고 이에 대한 연극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때 좀 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는 방법을 가족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나 교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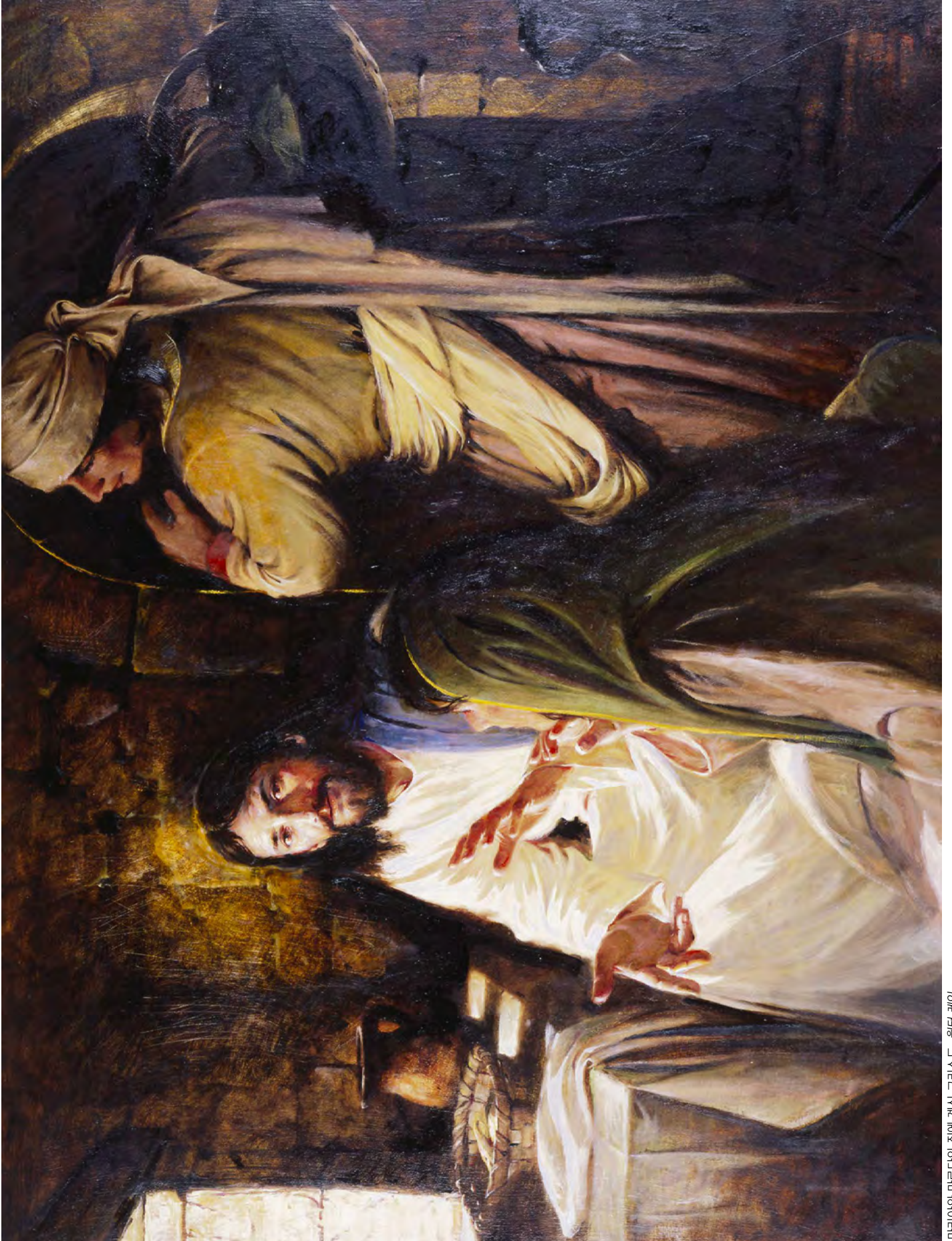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누가복음 10:40~42

가족의 일정에 영적인 일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고, 가족 평의회나 가정의 밤에서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누가복음 10:42 참조)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은 가정에 거하는 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과 질문, 간증을 편안하게 나누고,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돕는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5쪽 참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 월터 레인



4월 29일~5월 5일

요한복음 7~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은 요한복음 7~10장을 읽으면서 성신으로부터 이 장에 담긴 교리적 원리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영감을 기록하면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와 기쁨을] 사람들 중에”(누가복음 2:14) 주시려고 오셨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났다.(요한복음 7:43) 같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서로 매우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몇은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 또 다른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였다.(요한복음 7:12) 예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을 때,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반문하였다.(요한복음 9:16) 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으므로 그분의 말씀에서 권능을 느꼈다.(요한복음 7:46)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가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 주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복음 7:14~17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이 참됨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보이는 것에 놀라워했다.(15절 참조) 예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교육이나 성장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7:14~17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리가 참됨을 어떻게 알아 갈 수 있는가? 이 과정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8:2~11

누구나 구주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구주의 대화에 대해,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 구주께서는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여인은 구주의 연민과 자비 덕분에 변화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이 일로 그녀가 구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8:11, footnote c 참조] (“우리의 선한 목자,”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0쪽)

언제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구주께 정죄 대신 자비를 받았다고 느꼈는가? 언제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도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했었는가?(요한복음 8:7 참조) 구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소통하셨던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구주의 용서에 대해 어떤 점을 배웠는가?

요한복음 8:58~59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왜 분노했는가?

출애굽기 3:14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낼 때 쓰신 명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임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죄값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9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 우리 삶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죄에는 종종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므로, 우리는 불행을 잘못된 결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자,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다. 요한복음 9:3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요한복음 9:3)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이 전세를 믿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대배도 기간 동안 기독교에서 상실되었으나 현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교리와 성약 93:29,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2~26 참조)

요한복음 10:16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구주께서는 부활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다른 양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다.(제3나피야 15:21~16:5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복음 7:24

가족들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가족 중 한 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만든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족의 겉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그 가족의 장점을 나열해 본다.(또한 사무엘상 16:7 참조)

요한복음 8:31~36

우리는 어떻게 종종 죄의 노예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칼 하인리히 블로흐

요한복음 9장

가족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그려 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극으로 꾸며 보거나 “예수께서 맹인으로 난 자를 고치심” 동영상을 볼 수도 있다.(LDS.org) 가끔씩 중간에 멈추어 가족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해당 구절을 읽을 수 있게 한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모두 찾아 써 보자고 한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써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0:1~8, 27~29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면서 가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 강도, 문, 목자, 삯꾼(고용된 노동자), 이리, 그리고 양 중에서 한 가지씩 그림을 그려 보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8, 27~29절을 읽고, 그들이 그린 대상에 대해 구주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토론해 본다.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영감을 주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본다. 경전을 읽을 때, 영은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거나 마치 여러분만을 위해 쓰인 듯한 특정 단어나 문구에 주목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요한복음 7~10장에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단어 혹은 문구를 적어 볼 수도 있다.



더 잃지 않도록, 그레그 케이 올슨



탕자, 리즈 레몬 스윈들.

5월 6일~12일

누가복음 12~17장; 요한복음 11장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누가복음 12~17장과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한다. 이 성구들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많은 경우, 100중 99라는 수치는 매우 훌륭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숫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교리와 성약 18:10) 그런 경우라면 구주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철저하고 필사적으로 찾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누가복음 15:4) 그리고 그럴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는(누가복음 15:7) 말씀에 묘사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모두 구조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구조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은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 함께 기뻐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8:15~16)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누가복음 12장; 14~16장

나는 세상의 것보다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큰 공간을 짓고 그곳을 수고의 결실로 가득 채운 근면하고 성공한 남성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셨는가?(누가복음 12:16~21 참조)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구주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세상의 것에서 들어 올려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 비유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각 비유의 교훈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누가복음 12:13~21)

잔치의 비유(누가복음 14:12~24)

탕자의 비유(누가복음 15:11~32)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누가복음 16:1~12)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누가복음 16:19~31)

또한 마태복음 6:19~34, 니파이후서 9:30, 교리와 성약 25:10을 참고한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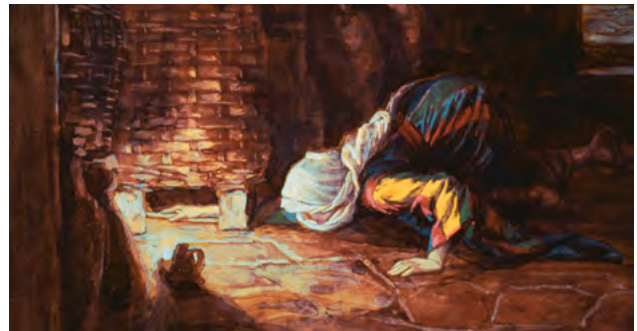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지었거나 “잃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그런 자들과 어울리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이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들 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예를 들어 무엇을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았으며, 그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자신은 잃은 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잃은” 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셨는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물론 잃어버려진 자가 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대해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죄에 항거한 의로운 영혼보다 회개한 죄인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예수 그리스도 [1916], 461쪽)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구주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위안의 말씀이었다.

또한 교리와 성약 18:10~16과 제프리 알 홀런드, “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9~72쪽을 참고한다.



잃어버린 은 동전, 제임스 티소

누가복음 16:1~12

그리스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지런하라. 세상적인 재물을 사용할 시간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다.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에게서도 배울 교훈이 있다.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토록 신중하다면 영원한 미래를 믿는 여러분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신중하여야 하겠는가?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와 신중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속하는 재물을 맡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467~468쪽)

누가복음 17:11~19

받은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다시 돌아가서 구주께 감사를 드렸겠는가? 감사를 드렸던 나병 환자는 그 행동 덕분에 다른 어떤 축복들을 또 받게 되었는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6~69쪽)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의 내용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을 일지에 적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한복음 11:1~46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기적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력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간증이였다. 요한복음 11장 1~46절에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해 주는 어떤 단어나 문구,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가?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누가복음 15:1~10

여러분의 가족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가? 그러한 경험에 대해 나누면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혹은 가족 중 한 명이 숨고 나머지 가족들이 그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위의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복음 15:11~32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만아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가?

누가복음 17:11~19

가족들이 열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감사를 전하는 비밀 쪽지를 적어 집안 곳곳에 붙여 보자고 제안한다. 또는 찬송가 142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를 같이 부르고 가족이 받은 축복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요한복음 11:1~46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다” 동영상을 (LDS.org) 함께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이야기와 예를 활용하여 복음 원리를 가르친다. 구주께서는 자주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다. 가족들이 복음 진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예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2쪽 참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리즈 레먼 스윈들



5월 13일~19일

마태복음 19~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태복음 19~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다. 마음에 전해지는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 영이 전해 주는 느낌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계획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구주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는가? 한 부자 청년이 구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마태복음 19:16) 구주의 대답에는 그 청년이 이미 해 왔던 선한 일에 대한 칭찬과 더 큰 선을 행하라는 사랑에 찬 격려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그 청년처럼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질문할 때(마태복음 19:20) 구주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응답처럼 개인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려면 항상 자신의 정당성보다 그분을 더 신뢰해야 한다.(누가복음 18:9~14 참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누가복음 18:17; 또한 제3니파이 9:22 참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9:1~9; 마가복음 10:1~12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구주께서 바리새인과 나누신 대화는 구주께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 가르치신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이다. 마태복음 19장 1~9절과 마가복음 10장 1~12절을 읽고 결혼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topics.lds.org에서 복음 주제, 결혼을 찾아보고 발견한 내용을 목록에 추가한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남녀 간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하여 주님이 정하신 표준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3~9; 마가복음 10:2~12

예수께서는 이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한 사람들은 재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쪽 배우자 혹은 둘 다의 잘못된 선택 혹은 이기심 등과 같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마태복음 19:8) 종종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신다.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이혼한 사람들이 더 높은 해의 왕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부모덕의

오점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혼한 회원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합당성에 있어서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표준에 따라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쪽)

또한 topics.lds.org에서 복음 주제, “이혼”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9:16~22; 마가복음 10:17~22; 누가복음 18:18~23

주님께 여쭙다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충실히 한평생을 제자로 살아 온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마가복음 10장 17~22절을 읽으면서, 청년의 충실함과 진실됨을 보여 주는 어떤 증거를 찾았는가?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불완전하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질문을 평생에 걸쳐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의 사랑에서 온다는 점을 기억한다.(마가복음 10:21 참조) 주님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여쭙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

또한 래리 알 로렌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33~35쪽과 에스 마크 파머,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14~116쪽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20:1~16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포도원의 품꾼 중 어떤 사람의 경험이 자신에게 와닿는가?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찾았는가?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전한 “포도원의 품꾼”(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33쪽)이라는 말씀에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영감을 주시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9:1~9; 마가복음 10:1~12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을 읽는다. 이 선언문의 가르침은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세상의 메시지에서 생겨난 혼란과 오류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마가복음 10:23~27

재물을 가지는 것과 재물에 의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0:23~24 참조) 27절을 읽을 때, 조셉 스미스 역의 다음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나니,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나."

마태복음 20:1~16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나오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짧은 달리기 시합 같은 간단한 경기를 준비하고, 이기는 사람은 상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주를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똑같은 상품을 준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누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지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0:25~27; 마가복음 10:42~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0:2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원리를 몸소 보이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정, 와드나 지부,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1~14

이 성구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자신에게 알맞은 시간을 선택한다. 방해받지 않고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여러분에게 알맞은 시간을 선택하고 매일 그 시간에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스도와 부유한 젊은 관원, 하인리히 호프만



들무화과나무 위의 삭개오, 제임스 티스

5월 20일~26일

마태복음 21~23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20장; 요한복음 12장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본 개요에 나와 있는 제언들을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1~23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20장, 요한복음 12장을 읽는다. 가족과 함께 또는 교회 공과 시간에 나눌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구주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신 터라 몹시 시장하셨고, 멀리서 본 무화과나무는 먹을 만한 열매가 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열려 있지 않았다.(마태복음 21:17~20, 마가복음 11:12~14, 20) 그 무화과나무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았다. 그들의 공허한 가르침과 거룩함의 외적 표현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많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간과하고 있었다.(마태복음 22:34~40, 23:23 참조)

이에 반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로 길을 만들고 마침내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라는 옛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했다.(스가랴 9:9) 이번 한 주 동안 경전을 읽으면서 구주의 가르침과 속죄 희생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 열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요한복음 12:24)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9:1~10; 20:45~47

주님께서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의 소망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리, 즉 세금 징수원들이 부정직한데다 자기네 돈을 빼돌리기까지 한다고 인식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다. 누가복음 19장 1~10절을 보면 삭개오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이 구절에서 삭개오가 주님께 헌신을 보이기 위해 한 일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 적어 본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서기관 및 바리새인과 주고받으신 대화는 삭개오와 나누신 대화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위선자들에게는 의분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마땅히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억압하며 세상의 칭송이나 영향력과 부를 얻고자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진실함에 대하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81쪽)

마태복음 23장에서, 구주께서는 몇 가지 상징을 들어 위선을 설명하셨다. 이 상징들에 표시하거나, 그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고, 각각의 상징들이 위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적어 본다. 구주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88편 62~63절과 137편 9절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9~44;

요한복음 12:12~16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21장 1~11절, 마가복음 11장 1~11절, 누가복음 19장 29~44절, 요한복음 12장 12~16절에는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이 묘사되어 있다. 구주를 왕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께 향유를 붓고(요한복음 12:1~8 참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길에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서두를 장식했던 여러 사건을 어떻게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왕에게 기름을 붓는 고대의 예시: 열왕기하 9:1~13
- 승리의 입성에 관한 고대의 예언: 스가랴 9:9
- 호산나의 의미: 경전 안내서, “호산나”
-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 7:9~10, 19:11~16

여러분은 어떻게 구주를 자신의 주님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구주”(동영상, LDS.org)를 참고한다.

마태복음 22:34~40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가 되는 길을 단순화하고 그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계명 몇 가지를 목록으로 만든다. 각 계명은 두 가지 큰 계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두 가지 큰 계명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마태복음 23:5

경문이란 무엇인가?

경문은 경전 구절이 적힌 양피지 조각을 담은 가죽 상자였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작은 가죽 상자를 가죽 띠에 연결하여 이마나 팔에 둘렀다.(신명기 6:6~8 참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유별나게 큰 경문을 차고 다녔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복음 12:1~8

마리아는 구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의 발을 씻음 브라이언 콜

요한복음 12:42~43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옹호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영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범을 보려면, 다니엘 1:3~20, 3장, 6장, 요한복음 7:45~53, 9:1~38, 모사이야서 17:1~4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21:12~17

우리는 성전에 대한 경건함과 존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전이 “기도의 집”(마태복음 21:12~13)과 영적인 치유의 장소가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삶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어린이 노래책*, 99쪽,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불러 본다.

마태복음 21:2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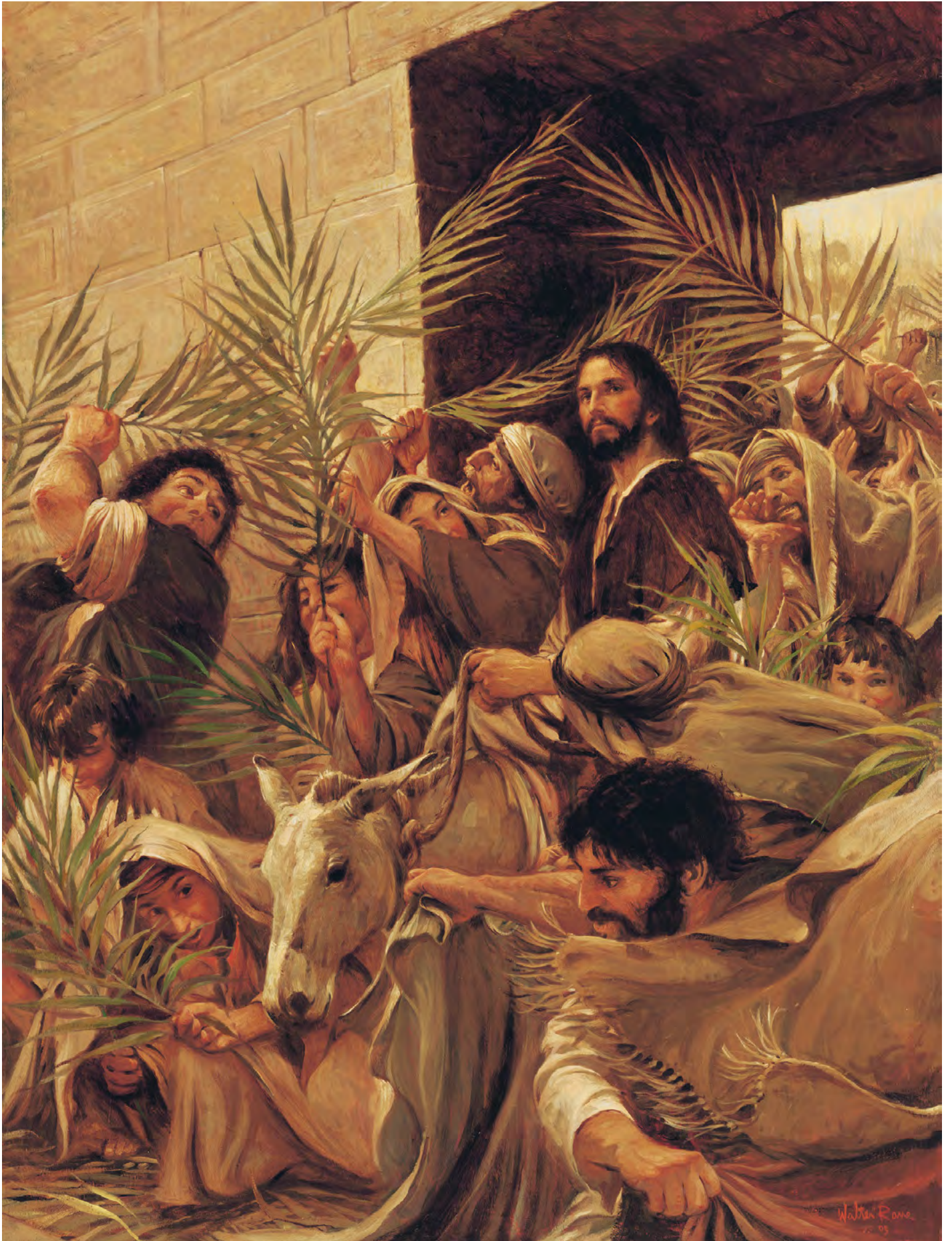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가령,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진정한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이 비유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고, 돌아가면서 다른 역할을 맡아 연기해 볼 수도 있다.

마태복음 22:15~22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21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미술을 활용해 가족을 참여시킨다. “복음 그림책과 LDS.org에 있는 LDS 미디어 자료실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개념이나 사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많이 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2쪽) 가령, 이 개요에 포함된 그림을 활용하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의 입성, 월터 레인



제림, 해리 앤더슨

5월 27일~6월 2일.

조셉 스미스—마태 1장;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2~13장; 누가복음 21장

“인자가 오리니”

조셉 스미스—마태 1장,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2~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며 자문해 본다. “이 성구는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나의 가족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의 부름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영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주님의 예언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이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께 여쭙었다.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에는] …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조셉 스미스—마태 1:2~4)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거대한 멸망은(서기 70년에 성취된 예언) 후기에 있을 당신의 재림에 관한 표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확고해 보이는 태양, 달, 별, 국가, 바다 등이 덧없는 것이 될 것이며,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다.(조셉 스미스—마태 1:33)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런 소요를 통해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조셉 스미스—마태 1:35, 37)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말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마태

조셉 스미스—마태는 어떤 경전인가?

깊진 진주에 수록된 조셉 스미스—마태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본이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구절과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개정한 내용이 실려 있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참조) 조셉 스미스의 영감 어린 개정을 통해 잃어버린 귀중한 진리들이 회복되었다. 조셉 스미스—마태 1장 12~21절은 고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부분이며, 21~55절에는 후기에 관한 예언이 실려 있다.

조셉 스미스—마태 1:21~37; 마가복음 13:21~37;
누가복음 21:25~38

구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읽다 보면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다.(조셉 스미스—마태 1:23) 지진과 전쟁, 기만과 기근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는 권고를 찾으면 표시하거나 기록한다.

또한 교리와 성약 29:14~21, 38:30, 45:16~52, 88:86~94,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마태 126~27, 38~55; 마태복음 25:1~13;
누가복음 21:29~36

구주의 재림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알려 주지 않으셨다.(마태복음 25:13)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뜻밖에” 그날을 맞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누가복음 21:34)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권고해 주셨다.

이 성구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함을 가르치시려고 구주께서 사용하신 비유와 비교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마태복음 25:14~30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구주의 시대에서 말하는 “달란트”란 돈을 의미한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 바라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 주님은 당신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하신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기회들을 나열해 본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은 이 축복들을 어떻게 더욱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25:31~46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어 본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또한 모사이사서 2:17을 참고한다.

마가복음 12:18~27

부활 후에도 결혼 관계는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예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교리와 성약 132:15~16 참조)라고 하신 것은, 해의 왕국의 결혼 성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어느 남자가 …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는 해의 왕국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성약에 충실하면 “영원무궁하도록” 지속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조셉 스미스—마태

가족들이 이 장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찾아보자고 한다.(예를 들어, 22~23, 29~30, 37, 46~48절 참조) 가족들은 이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셉 스미스—마태 1:22, 37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두면 미혹당하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마태복음 25:1~13

마태복음 25장 1~13절을 토론하면서 이 개요에 포함된 열 처녀의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들은 이 성구들에 묘사된 어떤 세부 내용을 그림에서 찾을 수 있었는가?

집안 곳곳에 기름 방울 모양의 종이를 숨겨 놓고 가족들에게 그것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기름 방울 종이를 경전, 교회 복장, 성전 사진처럼 가족들이 간증을 강화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상징하는 물건에 붙여 놓을 수도 있다.

마가복음 12:38~44; 누가복음 21:1~4

여러분의 가족은 과부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헌금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십일조 헌금 명세서를 보여 주면서 가족들이 주님께 어떤 것을 바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토론해 본다. 가족들이 주님께 바치는 것 중에 헌금 명세서에 기록될 수 없는 것도 있는가?



과부의 헌금, 산드라 래스트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올바른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느끼는 능력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5쪽) 성신을 초대할 수 있는 경전 공부 장소를 찾아본다. 우리를 고양하는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도 영이 임할 수 있다.



현명한 다섯 처녀, 윌터 레이인



나를 기뻐하라, 윌터 레인

6월 3일~9일

요한복음 13~17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3~17장에 실린 구주의 가르침을 읽는 동안, 여러분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성신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마음속에 전해지는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연례적인 유월절 만찬을 위해 모였을 때 예수의 제자들도 이것이 주님의 사망 전에 그분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가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요한복음 13:1) 그분은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가장 가까운 벗들로부터 배신과 부정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데 집중하셨다. 그분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은 절대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도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해 주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약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18)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한복음 15:1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복음 13~15장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보인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마태복음 22:34~40 참조) 마찬가지로, 사랑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다. 요한복음 13~15장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경전에 표시해 본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 부분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자주 연관되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주의 가르침에서 사랑과 계명의 관계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랑**과 함께 자주 반복되는 또 다른 단어들은 무엇인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랑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써 본다.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8~51쪽을 참고한다.

요한복음 14~16장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며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신에 대해 가르치셨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에서 성신의 역할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요한복음 14:16~17, 26 _____
- 요한복음 15:26 _____
- 요한복음 16:7~11 _____
- 요한복음 16:12~15 _____

왜 제자들은 성신에게서 이런 도움이 필요했는가? 성신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했는가?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동안 성신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방식을 찾아본다. 성신에 더욱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또한 모사이야서 3:19, 5:1~3,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서 8:25~26, 10:5, 교리와 성약 11:12~14, 모세서 6:61, 복음 주제 “성신”, topics.lds.org를 참고한다.

요한복음 15:1~8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한복음 15:4)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알려 주는 “열매”로는 무엇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중보 기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요한복음 17:20) 이 말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여러분과 믿는 자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셨는가?

이 기도에는 심오하고도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진리를 찾았는가?

요한복음 17:11, 21~2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됨을 강조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분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을 때는(요한복음 17:22), 제자들이 하나의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신께서 아버지와 목적과 마음, 생각 면에서 온전히 하나인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런 단합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었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복음 13:1~17

이 구절에서 우리 가족은 구주의 모범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4~35; 15:9~14

사랑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 관해 토론할 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또한 참고한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굳건한 기초가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기초의 모범이 가장 훌륭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사랑을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후기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 사랑은 복음의 정수이며, 인간의 영혼에 깃든 가장 숭고한 속성입니다.”(“나 너 사랑하듯”, *리아호나*, 2017년 2월호, 4~5쪽)

가족이 함께 종이 하트 위에 서로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그리거나 써 볼 수 있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 이 하트를 집안 곳곳에 놓아둔다.

요한복음 15:1~8

이 성구들을 밖에 나가서 포도나무 또는 다른 나무나 식물 옆에서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 활동은 여러분의 가족이 구주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스도는 가르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한복음 15:5)

요한복음 15:17~27; 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해 경고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핍박받는가? 이 성구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권고는 우리가 핍박을 이겨 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요한복음 16:33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그분의 속죄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평안과 격려를 주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68:6 참조)

요한복음 17:21~2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음성 자료를 활용한다. 가족들에게 경전에 대해 가르칠 때, LDS.org나 복음 자료실 앱에서 경전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다. 요한복음 13~17장에는 구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성으로 들으면 더욱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종이 더신 주님, 델 퍼스.



방이러라, 벤자민 맥퍼슨

6월 10일~16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실린 사건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받는 느낌, 특히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느낌을 기록한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필멸의 인간은 세 사람뿐이었지만, 그들은 그 시간 동안 거의 내내 잠들어 있었다. 그 동산에서, 그리고 그 이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 고난을 짊어지셨으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종종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충실한 아들이 하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누가복음 22:42~43) 비록 우리는 그토록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행위를 그곳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구주의 힘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겔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26:17~30; 마가복음 14:12~26; 누가복음 22:7~39

성찬은 구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은 살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누가복음 22:19; 또한 제3니파이 18:7 참조) 빵과 물, 그리고 이 의식의 다른 요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최초의 성찬에 대해 읽으면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조셉 스미스 역에 나오는 개정된 부분을 주목한다.(경전안내서 참조)

매주 성찬식 때 하는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성찬식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주를 기억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들을 적어 본다.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이 깃든 행동, 그분을 특히 가깝게 느꼈던 시간, 혹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짊어지신 죄와 고통 등을 적어 볼 수 있다.

또한, 제3니파이 18:1~13, 교리와 성약 20:76~79, 복음 주제 “성찬”, topics.lds.org, 그리고 “항상 그를 기억하고”(LDS.org 동영상)를 참고한다.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40~46

구주께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구주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에 관해 공부하”라고 권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0쪽)

넬슨 회장의 권유대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먼저 구주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하여 각 구절에 묘사된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과 질문을 써 볼 수 있다.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려면, 경전의 다른 구절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 구주의 속죄는 왜 필요했는가? (니파이후서 2:5~10, 17~26, 9:5~26, 앨머서 34:8~16, 42:9~26 참조)
- 고통을 겪으실 때 구주께서는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가? (이사야 53:3~5, 모사이야서 3:7, 앨머서 7:11~13,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 구주의 고통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한복음 10:10~11, 히브리서 4:14~16, 요한1서 1:7, 앨머서 34:31, 모로나이서 10:32~33, 달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1~64쪽 참조)
- 이 외에 내가 생각한 다른 질문들:

겻세마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공부할 때 알아들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겻세마네는 올리브(감람나무) 동산이었으며 그곳에 있는 착유기로 올리브를 압착하여 짜낸 기름은 등불의 연료, 음식, 약으로 쓰였다는 것이다.(누가복음 10:34 참조) 무거운 돌로 압력을 가하여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과정은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짊어지신 죄와 고통의 무게를 상징한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50~51쪽 참조)

마가복음 14:27~31, 66~72; 누가복음 22:31~32

개종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베드로가 구주와 함께했던 경험들, 즉 그가 본 기적과 배운 교리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도 구주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2:32; 기움임체 추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간증을 갖는 것과 온전히 개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가르쳤는가? (“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6~109쪽 참조) 마가복음 14장 27~31, 66~7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경험을 읽으면서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신약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베드로의 개종과 다른 사람을 강화하려는 그의 노력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었는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베드로의 개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요한복음 15:26~27; 사도행전 1:8; 2:1~4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구주가 지상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주간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읽는 동안,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26:17~30; 마가복음 14:12~26; 누가복음 22:7~39

여러분의 가족은 매주 성찬식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성찬의 중요성과 좀 더 의미 있는 성찬 예배를 드릴 방법을 토론해 볼 수 있다. 성찬 전달(복음 그림책, 108번) 그림을 보여 주고, 성찬을 취하기 전과 취하는 동안, 또 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누가복음 22:40~46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항목 아래 제시된 성구를 각자 공부하며 배운 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누가복음 22:50~51

이 사건에서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까지 참으라, 월터 레인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40~46

우리는 이 구절들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에 대해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읽어 본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나온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의 주제 색인에서 “속죄”를 찾아볼 수도 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1쪽 참조)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월터 레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안토니오 시세티

6월 17일~23일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는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최후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과 사망에 관해 공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자 노력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바울이 사랑이라고 부른 순수한 사랑의 본모기를 보여 주셨다.(고린도전서 13장 참조)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이 마지막 시간만큼 그분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난 시기는 없었다. 거짓 고발에 맞서 그분이 보이신 위엄 있는 침묵은 참으로 “성내지 아니”하는 모습이었다.(고린도전서 13:5) 자신의 고뇌를 종식할 수 있는 권능을 억제하시며 채찍질과 조롱, 그리고 못 박음에 순순히 응하셨던 모습은 그분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심을 보여 준다.(고린도전서 13:4, 7)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과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못 박는 자들에게 보이신 자비는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심을 나타낸다.(고린도전서 13:5) 그분께서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지상 성역 동안 줄곧 해 오신 일을 계속하셨다. 바로 모범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참으로, 사랑(자애)이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모로나이서 7:47)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아버지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구주께서는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마태복음 26:53) 부를 권능이 있으셨지만,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재판, 가혹한 조롱,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니파이가 간증했듯이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니파이전서 19:9)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구주의 최후 몇 시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읽어 본다. 예수께서 겪으실 고통에 대해 니파이가 전한 예언의 실례들을 다음 성구 중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_____

“그를 채찍질하[고]” _____

“그를 치[고]” _____

“그에게 침을 뱉[고]” _____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친절”을 느낄 수 있는 성구는 어떤 것인가? 구주께서 보여 주신 속성 중 여러분이 더 온전히 키우고 싶은 속성은 무엇인가?

또한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는 예수님”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구주”(LDS.org 동영상)를 참고한다.

마태복음 27:27~49, 54; 마가복음 15:16~32;

누가복음 23:11, 35~39; 요한복음 19:1~5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행위 앞에서도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성역 내내 조롱을 견디셨지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 조롱은 더욱 거세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 견디셨던 모욕에 대해 읽으면서 오늘날 그분의 사업에 가해지는 반대와 조롱을 생각해 본다. 반대를 견디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말에서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들려주었다. “저는 …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간증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은 완전했으나 고독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던 그분의 영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 [구주]의 속죄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했습니다.”(“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7~88쪽)

누가복음 23:34

구주께서는 용서의 본보기가 되신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담긴 구주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구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68쪽)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 이 성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3:39~43

구주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전에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후에 있을 영의 세계의 평화롭고 행복한 곳”, 즉 의로운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을 의미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낙원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설명했다[으며, 사실 이때] 주님은 강도에게 [그가] 그분과 함께 영의 세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가르쳤다.(*신앙에 충실함*, 50쪽) 그 강도는 영의 세계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었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27:3~10

유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음이니,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14:31)이었다. 간증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충실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7:11~26; 마가복음 15:1~15; 누가복음 23:12~24; 요한복음 19:1~16

왜 빌라도는 예수께서 결백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는가? 빌라도의 경험에서 우리는 옳다고 믿는 일을 수호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가족들이 옳은 것을 옹호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대본을 만들어 함께 역할극을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 끌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요한복음 19:17)

마태복음 27:46; 누가복음 23:34, 43, 46; 요한복음 19:26~28, 30

다음 성구들을 참조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한두 가지를 가족에게 각각 나눠 주고 그들이 이를 통해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어떤 점을 배우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마가복음 15:39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기록을 읽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간증은 어떻게 더욱 강해지는가?

요한복음 19:25~27

우리는 이 성구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점을 배우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구주의 생애를 본받는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 즉 그분이 사용하신 교수법과 하신 말씀을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들어 올리는 구주의 권능은 ... 그분의 인품에서 왔다. 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좀 더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3쪽)



십자가의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내 양을 먹이라, 카밀 코리

6월 24일~30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을 읽는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얻은 간증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지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많은 사람은 위대한 삶의 끝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자가 아닌가? 그는 바리새인들의 살인 위협을 몇 번이고 견뎌 내지 않았던가? 그는 실명, 나병, 중풍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였다. 바람과 바다조차 그에게 순종했지 않았는가? 그랬던 그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요한복음 19:30)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태복음 27:42)라는 조롱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덤의 침묵은 일시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분은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산 자 가운데에 계신다.(누가복음 24:5)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8:19~2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성구에서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읽게 될 것이다. 성구를 읽으면서 부활을 둘러싼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 그 목격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구주의 부활에 관해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드는가? 부활이라는 사건이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다른 복음 진리에 대한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경전 안내서 “부활”과 복음 주제 “부활”, topics.lds.org를 참고한다.

누가복음 24:13~35

우리는 구주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여행 중에 부활한 구주를 만난 두 제자의 경험은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여정과 비슷할 수 있다. 이 기록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겪는 경험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유하”시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29)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그분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성신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해 주셨는가?

누가복음 24:36~43; 요한복음 2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드셨다. 다른 경전 구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의 육체를 가지고 계심을 증언한다. 빌립보서 3:20~21, 제3니파이 11:13~15, 교리와 성약 110:2~3, 130:1, 22.

요한복음 20:19~29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물질적인 증거를 보지 않고 무언가가 참되다고 믿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가끔 여러분은 도마처럼 “내가 ...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요한복음 20:25)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주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20:29)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받아 왔는가? 구주를 볼 수 없음에도 그분을 믿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물질적인 증거 없이 또 어떤 진리들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믿는 신앙을 꾸준히 키울 수 있을까? (앨마서 32:21; 또한 이더서 12:6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일지에 쓰거나 지인과 나누어 본다.

요한복음 21:1~17

구주는 내게 그의 양을 먹이라고 권유하신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구주와 사도들의 대화를 그들에게 처음 낚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던 누가복음 5장 1~11절의 기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는가? 제자 됨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본다. 주님의 양을 먹이지 못하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3~85쪽을 참고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복음서 읽기를 마칠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은 어떤 점에서 희망적이고 중요한 말인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

가족과 함께 경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각 기록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구주의 무덤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음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도 또는 제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공부할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존 맥너튼

마태복음 28:16~20; 마가복음 16:14~20; 누가복음 24:44~53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관해 가족이 함께 토론해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목적을 완수하도록 도울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는가?(마가복음 16:20)

요한복음 21:15~17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어 본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구주의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주님께서 양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신약전서에 나온 부분을 살펴볼 때(예를 들어, 마태복음 9:35~36, 10:5~6, 25:31~46, 누가복음 15:4~7, 요한복음 10:1~16 참조), 양을 먹이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가 되는가?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음악을 활용하여 영을 초대하고 교리를 배운다. “주님 다시 부활했네”나 “주님 부활하셨네”(찬송가, 123, 122장)와 같은 찬송가를 들으면 영을 초대하고, 구주의 부활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덤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마리아, 조셉 브릭키



원 그림: 시몬, 칸
요순정, 시몬, 칸

7월 1일~7일

사도행전 1~5장

“너희가 …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는 동안, 성신은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끼는 구절을 기록해 두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를 찾는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10)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셨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마태복음 28:19) 일을 이끌어 갈 책임은 베드로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꼈거나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기록에는 두려움 없는 간증, 개종, 기적적인 치유, 영적 현시, 교회가 이룩한 중요한 성장의

예들이 나온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셨던 그 몽매한 어부가 아니었다. 또, 바로 몇 주 전에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고 혼란스러워하던 그 사람도 아니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된 구절들을 읽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용감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용감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신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사도행전 1:1~8, 15~26; 2:1~42; 4:1~13, 31~33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사도행전에는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성신을 통한 계시로써 교회를 인도하셨다. 성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인도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본다. 사도행전 1:1~8, 15~26; 2:1~42; 4:1~13, 31~33.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과제, 부름, 또는 책임을 주셨는가? 이 초기 사도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또한 경전 안내서에서 “성신”을 참조한다.

사도행전 2:1~18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방언의 은사는 때로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영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같습니다.] ... 방언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에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8], 383~384쪽) 유대인은 그들의 큰 명절인 오순절 축제에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은 방언의 은사 덕분에 사도들의 말을 각자의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2:36~47; 3:13~21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 준다.

여러분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찢[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사도행전 2:37) 그런

느낌은 후회할 일을 했거나 단순히 삶을 바꾸고 싶을 때 찾아오곤 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준 권고가 나온다. 사도행전 2장 37~47절을 보면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지칭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부르기도 함) 이 개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여러분은 이미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데일 지 렌랜드 장로의 다음 말을 숙고해 본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침례의 축복과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더 충만하게 받을 때,] ...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6쪽)

또한 니파이후서 31장, 제3니파이 11:31~41, 제3니파이 27장,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장로의 “그리스도의 교리”(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6~109쪽)를 참조한다.

사도행전 3:19~21

“새롭게 되는 날”과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롭게 되는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시는 복천년을,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복음이 회복되는 때를 가리킨다.

사도행전 3장; 4:1~31; 5:12~4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권능을 받는다.

못 걷게 된 이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구걸하려 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은 그에게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사도행전 3장, 4장 1~31절, 5장 12~42절을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다음 인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못 견게 된 이 _____

대제사들과 통치자들 _____

베드로와 요한 _____

다른 성도들 _____

성전에 있던 증인들 _____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과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베드로” 동영상을 참조한다.(LDS.org)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사도행전 2:37

누군가가 복음을 가르쳐줄 때 “마음이 찢”리는 느낌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것은 언제였는가? 이 느낌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 3:1~8

성전에 있던 남자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는 어떠한 경험을 해 보았는가?

사도행전 3:12~26; 4:1~21; 5:12~42

베드로와 요한의 충실함에서 어떤 점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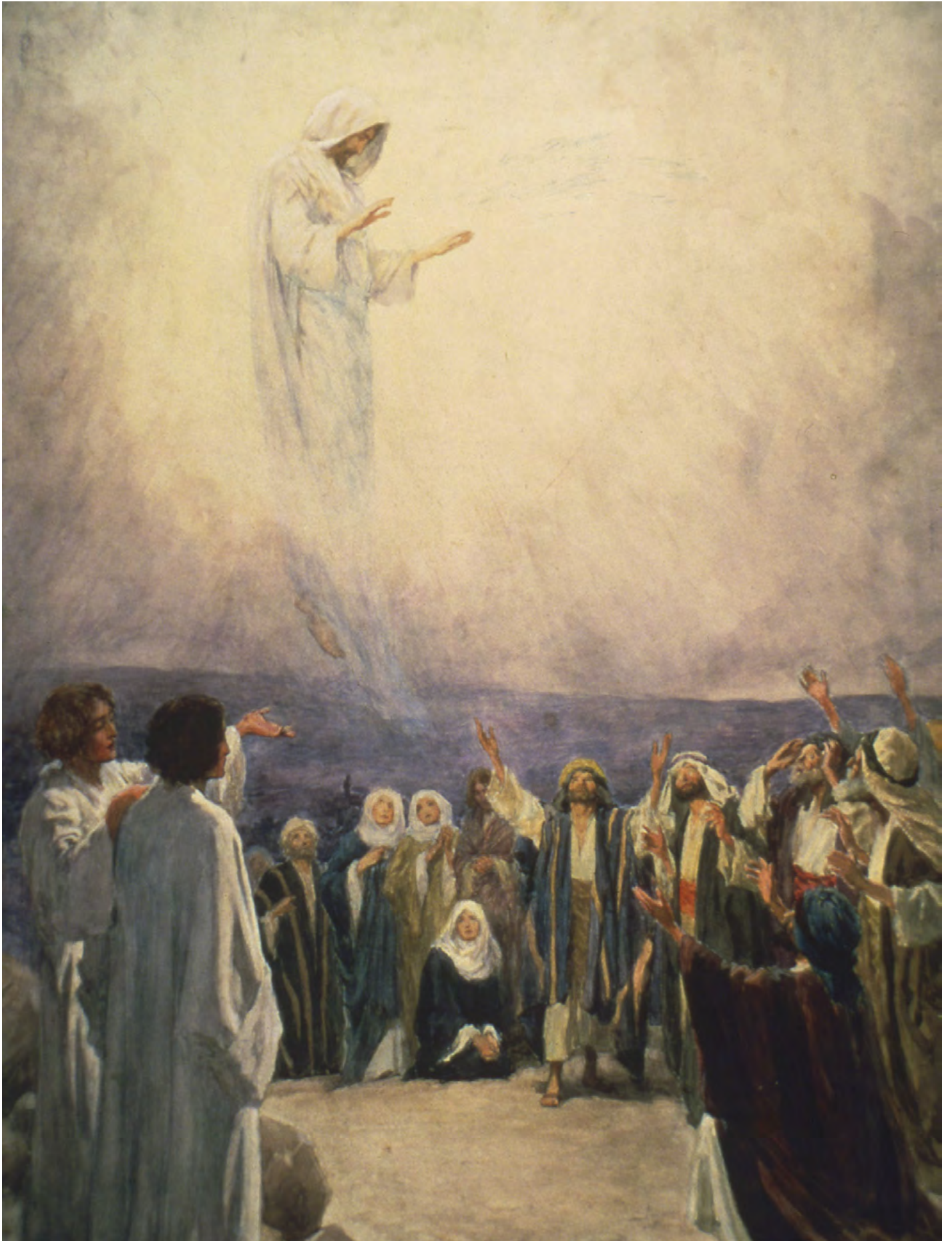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도 주리라, 윌터 레인

사도행전 4:32~5:11

가족과 함께 간단한 의상과 동전 몇 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를 연극으로 꾸며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정직,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 헌납 등 여러분의 가족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주제를 선택한다. 가족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할 때,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공부할 주제를 선정해 보게 한다.



주님의 승천, 윌리엄 헨리 마켓슨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소서, 샘 롤러

7월 8일~14일

사도행전 6~9장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먼저 사도행전 6~9장을 읽는다. 여러분은 본 개요에 수록된 제언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전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며 찾았을 원리 이외의 중요한 원리들을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사울은 누가 보아도 개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 그에게 축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옵나이다.]”(사도행전 9:13) 그러나 사울의 본심과 잠재력을 아셨던 주님은 사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정 사명이

있으셨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사도행전 9:15)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울을 만났고, 그를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다.(사도행전 9:17) 이렇듯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아나니아가 그토록 거리낌 없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우리도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람은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사도행전 6~8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장하면 왕국에서 봉사할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사도행전 6장 1~15절에 따르면, 십이사도는 함께 봉사할 이들에게 어떤 자질을 기대했는가? 사도행전 6~8장을 읽으면서, 스테반과 빌립 같은 이들은 그러한 자질 외에도 또 어떤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주목해 보자. 시몬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가?(사도행전 8:21~22) 그러한 변화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6~7장

성신을 거부하는 일은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대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권력을 탐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스테반은 유대인을 향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했다.(사도행전 7:51) 성신(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성신을 거스르는 일은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거스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가?

사도행전 6~7장을 읽으면서,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교훈을 더 찾아보자. 스테반은 어떤 태도를 경고했는가? 여러분에게서 그와 유사한 태도를 찾을 수 있는가? 스테반의 가르침에서 성신을 거스른 결과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서 더 민감하게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따를 수 있겠는가?

또한 “스테반의 순교”(LDS.org) 동영상도 참조한다.

사도행전 7:54~60

스테반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는가?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순교한(믿음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일컫는 말)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를 통틀어 그 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다 스테반처럼 죽임을 당했다. 다음은 그중 몇몇 인물들이 언급된 성구이다. 역대하 24:20~21; 마가복음 6:17~29; 사도행전 12:1~2; 요한계시록 6:9~11; 모사이야서 17:20; 엘마서 14:8~11; 힐라만서 13:24~26; 교리와 성약 109:47~49; 135:1~7; 아브라함서 1:11.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8:26~39

성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6~39절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성신은 어떻게 빌립을 도와주었는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과 어떻게 같은가?(사도행전 8:31 참조)

사도행전 9:1~31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울의 개종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보인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감금하다가 “즉시” 나아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사도행전 9:20)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생각해 보자.(사울이 자신의 개종에 관해 설명한 기사는 사도행전 22장 1~16절과 26장 9~18절을 참조한다. 이 기록들에서는 이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있음을 주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긴 과정을 거쳐 개종을 하게 된다. 사울은 그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개종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사울의 개종에 대해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는가? 사울처럼 여러분도 먼저 기도으로써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주님께 여쭙 수 있다.[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누락되어 있는 문장임—옮긴이] 또는 이 질문을 일지에 제목으로 적고, 시간을 두고 자신이 느낀 영감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0~77쪽)와 “다메섹으로 가는 길”(동영상, LDS.org)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사도행전 6:8~7:60

사도행전 6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51~60절에 있는 스테반의 기사를 누가복음 23장 1~46절에 있는 구주의 기사와 비교해 본다. 스테반은 어떻게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랐는가?

사도행전 7:51~60

스테반이 박해받을 때, 성신은 어떻게 그를 축복했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신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해 보았는가?

사도행전 9:5

여러분의 가족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개역 개정판에는 누락되어 있음—옮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가? 가시채는 동물을 몰 때 쓰는 날카로운 막대기를 말한다. 동물들은 이 막대기에 찔리면 뒷발질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막대기가 동물의 살갓을 더 깊이 찔렀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다비다가 일어나다, 샌드라 에프 가건

사도행전 9:32~43

가족들에게 사도행전 9장 32~43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자고 한다. 애니아와 다비다, 욥바의 과부들을 통해 참된 제자들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들의 모범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사도행전 9:36, 42; “제60장: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 신약전서 이야기, 156~157쪽, 또는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동영상[LDS.org] 참조)

개인 공부를 위한 도움말

경전을 삶에 대입해 본다. 경전을 읽으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가령,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느껴 본 경험을 언제 해 보았는가?(사도행전 7:55)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월터 레인



7월 15일~21일

사도행전 10~15장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0~15장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전해지는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본다. 이번 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수해 오던 전통과 믿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르침을 자주 전하셨다. 이런 일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그분은 계시로써 당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끄셨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교회의 선지자가 된 직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시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은 지금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은 고대에도 현대에도 선택된 지도자들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아모스 3:7; 교리와 성약 1:38) 교회의 정책과 복음의 실천 방식을 변경하신다는 점일 것이다. 계속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분]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계시하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 모두를 포함한다.(신앙개조 제9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대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앗”, 즉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선택받은) 사람을 뜻한다고 믿었다.(누가복음 3:8 참조)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지 아니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 이들로 여겨졌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가르침에 따르면, 그분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는가?(사도행전 10:35) 이 장에는 고넬료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34절) 누구든지 복음대로 생활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니파이전서 17:35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매정하게 대하거나 충분한 지식 없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앞으로 며칠 동안 다음과 같은 간단한 활동을 해 보면 좋을 것이다.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생각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대하는 방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내 사랑 안에 거하라”(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8~51쪽), 사무엘상 16장 7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베드로의 계시”(동영상, LDS.org)를 참조한다.

사도행전 10장; 11:1~18; 15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를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어 가르치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묘사된 시현을 본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고심했으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17절)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고자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을 읽으면서, 시간이 감에 따라 시현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잘 살펴본다. 무언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큰 이해력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에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종들을 인도하신 여러 사례가 나온다. 경전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시에 관해 알게 된 점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또한 복음 주제의 “계시”(topics.lds.org),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성령 인도하시어”(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3~96쪽), 동영상 “예루살렘 회의”(LDS.org)를 참조한다.

사도행전 11:26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사도행전 11:26 참조;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hristian으로,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음-옮긴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이름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가령, 여러분의 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름은 왜 중요한 의미를 띠는가?(교리와 성약 115:4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5:7~15, 엘마서 46:13~15, 제3니파이 27:3~8,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이름의 중요성”(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9~82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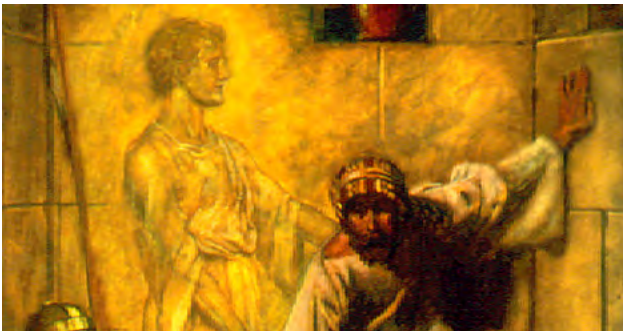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사도행전 10:17, 20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 그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배운 것들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이기도록 우리는 서로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겠는가?(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잊어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13~115쪽 참조)

사도행전 12:1~17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그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의 지도자나 사랑하는 사람 등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기도해 주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사도행전 12:5)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 에이 엘 녹스

사도행전 14장

가족과 함께 경전의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누구는 교회와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적어 보고, 다른 누구는 제자들이 겪었던 반대나 어려움을 적어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가?

사도행전 15:1~21

이 부분에는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개종자들이 성약을 맺는다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교회 안에서 견해 차이가 생겼던 일이 나와 있다. 결국 이 견해 차이는 사도들이 모여 이 문제를 숙고한 뒤 영감 어린 응답을 받음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기사는 가족들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가르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 싶은 복음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선택한다. 현대의 선지자 및 사도들의 가르침과 경전에서 함께 답을 찾아본다.(경전 안내서와 교회 잡지의 연차 대회 특집호에 있는 주제 색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그림으로 그린다. 가족들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경전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다. 여러분이 몇 구절을 읽어 준 다음,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와 관계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한다. 가령,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시현을 함께 그려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사도행전 10:34)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7월 22일~28일

사도행전 16~21장

“하나님이 …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생각과 느낌을 통해 영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느낌을 기록한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비록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사도행전 16~21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팔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 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주며,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냈다. 그리고 대배도를 예언했다.(사도행전 20:7~12; 20:28~31) 그들이

시작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이 헌신적인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주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인 중에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그들과 나누도록 영이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것을(사도행전 17:16) 느껴 보았을 것이다. 바울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눈다면, 여러분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두신]”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도행전 16:14)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사도행전 16~21장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 영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성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성신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사도행전 16~21장을 읽으면서, 영이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을 인도해 주었던 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들은 영을 따랐으므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고자 힘쓸 때 영의 속삭임을 느껴 보았는가? 언제 그러한 경험을 했는가?

또한 엘마서 7:17~20,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회복된 복음을 나눔”(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57~60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92~93쪽을 참조한다.

사도행전 16~21장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면,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만둘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간수들을 개종시켰다.(사도행전 16:16~34 참조) 사도행전 16~21장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기꺼이 모든 사람과 나누고자 했던 사례를 더 찾아본다. 바울이 그토록 대범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21장에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더 많은 교훈이 나온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특별히 여러분에게 적용될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어 본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찾았는가?

사도행전 17:16~34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바울은 아덴에서 다양한 의견과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 듣[고자]” 했으며, 바울의 말은 분명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사도행전 17:19~21 참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사도행전 17:23) 포함해 여러 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알기에 신은 힘이나 에너지일 뿐 인격이 있는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말을 읽으며,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했는지 알아본다. “하나님의 소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사도행전 17:29)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창조물 중 하나가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간증할 때 바로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떤 말을 해 주었겠는가? 여러분의 간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또한 로마서 8:16, 요한1서 5:2,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동영상, LDS.org)을 참조한다.



영혼의 가치, 리즈 레먼 스원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사도행전 16~21장

이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지도에 표시해 볼 수 있다.(이 개요 끝에 있는 지도를 참고한다.)

사도행전 17:11; 18:24~28

어떻게 하면 이 구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더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어떻게 더 “고귀한”[noble: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너그러운”으로 번역되어 있음—웁긴이] 사람이 되어 가는가?(사도행전 17:11)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사도행전 18:24)

사도행전 19:1~7

가족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대해 토론할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

없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죄 사함을 위해 물에 침수되며 그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의 안수에 의해 주어집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95쪽)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얻었는가?

사도행전 19: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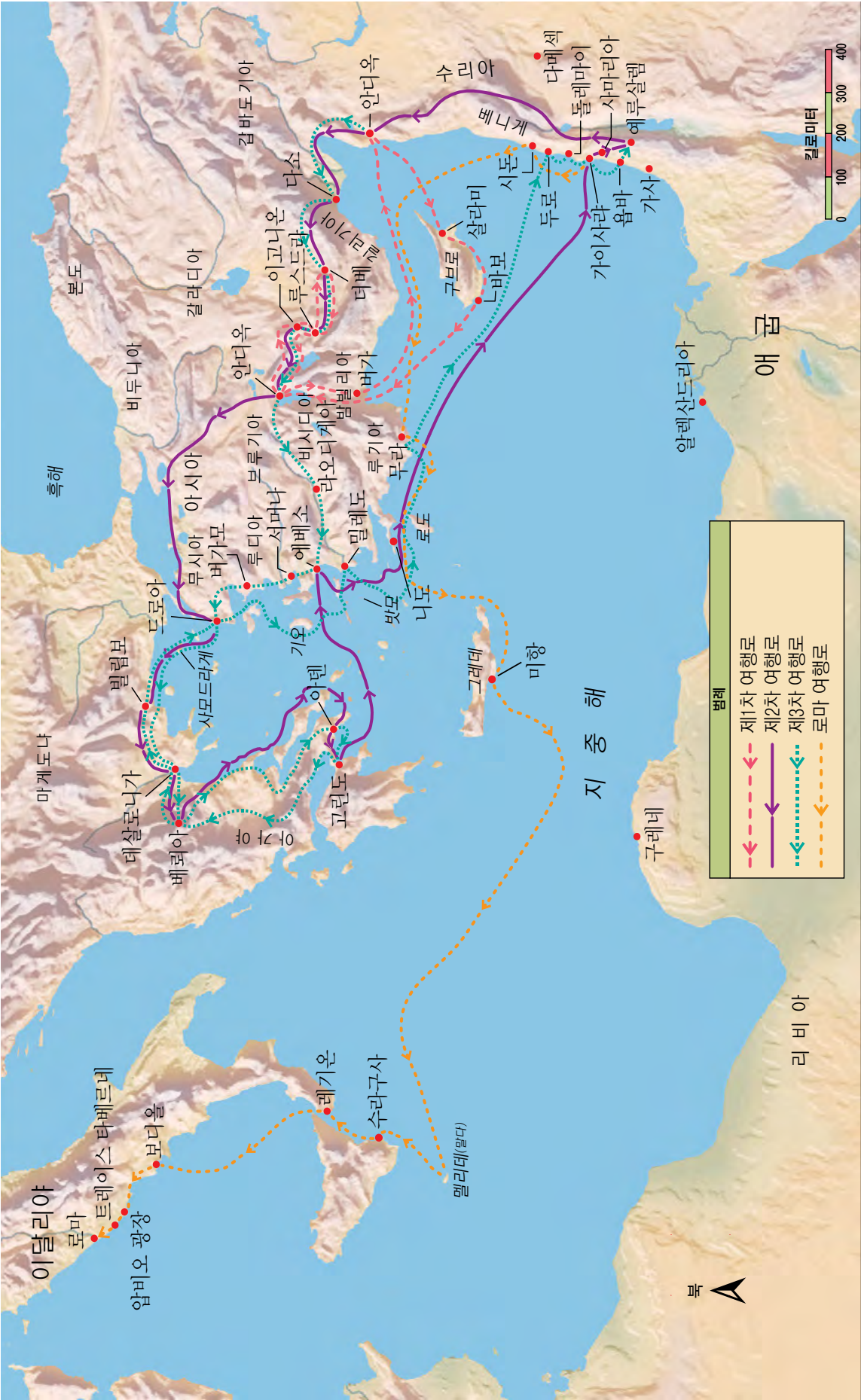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계기로 “은 오만”의 값어치가 있는 책들을 불살랐는가?(사도행전19:19)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포기해야 할 세상의 소유물이나 활동이 있는가?

사도행전 20:32~35

여러분의 가족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언제 경험해 보았는가?(사도행전 20:35) 여러분 가족의 봉사와 시간, 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이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논의하고 계획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이나 깨달음을 얻을 때, 이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경전의 여백, 복음 자료실 앱, 학습 일지 등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을 수 있다. “영적인 느낌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지시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더 자주 계시를 주시므로써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2쪽; 또한 30쪽 참조)



지도 바울의 선교 여행



7월 29일~8월 4일

사도행전 22~28장

“종과 증인”

성신의 느낌은 고요하게 올 때가 많으며, 때로 그 느낌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성신이 전해 주는 느낌을 기록해 두면,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2~28장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해 두고, 시간을 내서 그것에 대해 숙고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저 순조로운 길을 가고 끝없는 성공 가도를 달릴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구주께서는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임무를 주셨다.(사도행전 9:15) 사도행전 22~28장에는 바울이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격심한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신체적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그가 탄 배가 난파되고, 뱀에 물리는 사고까지 겪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나와 있다.(사도행전 23:11) 바울의 경험은 주님의 종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마태복음 28:19~2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사도행전 22:1~21; 26:1~29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간증한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힘찬 간증은 그 로마 군대에 잡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전한 것이었다. 바울이 간증을 전한 이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그에게] 보이신 것”에 대해(사도행전 26:19) 담대하게 간증했다. 바울이 한 말 중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영감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된 과정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본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사도행전 22:1~21; 26:9~20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시현을 다룬 세 개의 기사가 각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기적 같은 시현을 다룬 기사가 세 군데에 수록되어 있다.(사도행전 9:3~20; 22:1~21; 26:9~20 참조) 각 기사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사들은 각기 대상과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전달되었으므로, 같은 경험을 전하면서도 대상에 따라 다른 부분이 강조된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셉 스미스도 첫번째 시현을 몇 개의 다른 기사로 기록한 바가 있다.(“첫번째 시현”,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전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기사는 다양한 양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렇게 여러 기사가 존재함으로써 독자들은 하나의 기사만 존재했다더라면 알 수 없었을 측면을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23:10~11; 27:13~25, 40~44

주님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자 힘쓰는 사람들 곁에 서신다.

바울의 성역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때로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지지를 가장 강하게 느끼기도 한다. 최근에 바울의 성역에 관해 읽은 것을 다시 살펴보고, 그가 견뎌 냈던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보면 좋을 것이다.(예를 들어, 사도행전 14:19~20; 16:19~27; 21:31~34; 23:10~11; 27:13~25, 40~44 참조) 주님은 어떻게 바울 곁에 서 주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점은 주님께 봉사하고자 여러분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사도행전 24:24~27; 26:1~3, 24~29; 27장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바울은 성역을 행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힘차게 간증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간증을 받아들였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도행전 24장 24~27절과 사도행전 26장 1~3절, 24~29절을 읽으면서, 다음 유대의 로마 통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보인 반응이 담겨 있는 단어나 문구를 적어 본다.

벨릭스 _____

베스도 _____

아그립바 왕 _____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은 자신이 탄 배와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으리라는 예언을 전했다.(사도행전 27:10) 27장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자. 그들의 경험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적용할 만한 어떤 교훈을 찾았는가?

여러분도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들과 같이 반응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생길 수도 있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권고를 듣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또한 니파이후서 33:1~2, 조셉 스미스—역사 1:24~2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경고의 음성”(리야호나, 2017년 5월호, 108~111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사도행전 24:16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회개하고자 노력한 덕분에 마침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다.]”(또한 교리와 성약 135:4 참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없앨 수 있을까?

사도행전 26:16~18

이 구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이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28:1~9

가족 중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거나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 기사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주님은 종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약속이 바울의 경험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연차 대회 말씀에서 주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이 약속한 것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의미 있는 약속을 선택하여 집에서 볼 수 있게 걸어 두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

사도행전 28:22~24

바울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22절에서는 “파”로 기록되어 있음), 오늘날에도 교회는 “반대를 받는” 일이 많다. 사람들이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자,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바울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될 원리들에 집중한다. 경전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여기서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점은 무엇인가?”(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7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용감하게 간증함, 대니얼 에이 루이스, 아그릴바 왕 앞에 선 바울



8월 5일~11일

로마서 1~6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신의 속삭임을 기록해 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성신의 속삭임에 대해 여러분이 느낀 것도 함께 기록해 둔다.

느낌을 기록한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등 다양한 부류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의 회원들에게 서신을 썼던 무렵,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갈릴리의 신자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무리가 아니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후, 기독교 회중은 사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대부분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거대한 제국의 수도인 로마도 그중 한 곳이었다. 바울의 서신은 로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사실상 그의 가르침은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의 우리 모두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로마서 1:16, 강조체 추가)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로마서~빌레몬서

사도들의 서한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이 서한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신약전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한을 썼으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그가 쓴 서한에 해당한다. 바울의 서한은 길이별로 정리되어 있다. 로마서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서한이지만,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기록되었다. 서한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경전 안내서에서 “바울의 서한”을 참조한다.

로마서 1~6장

구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나타낼 때, 나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된다.

다음 정의들은 여러분이 로마인에게 보낸 서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율법.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로 모세의 율법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행위”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의례 또는 의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바울은 율법과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 구원의 참된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교리, 즉 “믿음의 법”이라는(로마서 3:27~31 참조) 말을 사용하였다.

할례, 무할례. 고대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의 표징 또는 상징이었다. 바울은 “할례”라는 말로 유대인(성약의 백성)을, “무할례”라는 말로 이방인(아브라함의 성약에 들지 않는 자들)을 지칭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성약의 표징으로 필요하지 않다.(사도행전 15:23~29 참조)

의롭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죄를 사하는 것, 또는 죄에 대해 용서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는 용서받고 결백한 것으로 선언되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다. 바울이 설명했듯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경전 안내서,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scriptures.lds.org 참조; see also D. Todd Christoffers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Ensign*, June 2001, 18-25) 로마서에서는 *의*, *의로운*, *의롭다* 등의 말이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은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도움 또는 힘이다.” 모든 사람은 은혜를 통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은혜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노력을 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 “그것이 아니라면 이루어 내지 못했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얻는다.”(Bible Dictionary, “Grace”; 또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7쪽; 니파이후서 25:23 참조)

로마서 2:17~29

외적인 행동은 내면의 개종을 반영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로마에 있는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의 의식과 절차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7~29절을 포함한 바울의 서한을 읽을 때,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을 생각해 본다. 성찬을 취하거나 성전에 참석하는 등의 외적인 행위들은 여러분의 개종을 심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앨마서 25:15~16 참조) 여러분은 자신의 외적인 행위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2~34쪽을 참조한다.

로마서 3:10~31; 5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대담하게 선언한 것을 읽고 낙담할지도 모른다.(로마서 3:10) 그러나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도 나온다. 3장과 5장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로마서 3:23) 기억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고 “즐거워”하는 법을(로마서 5:2) 배우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지 생각해 보자.

로마서 6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촉구한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로마서 6장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는지를(4절) 이해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을 나눌 수 있겠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로마서 1:16~17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로마서 3:23~28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므로(Joseph Smith Translation, Romans 3:24)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연기”에는 부족할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특정한 것들을 행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5:3~5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어 보았는가?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인내와 경험, 소망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로마서 6:3~6

이 구절에서 바울은 침례의 상징에 관하여 어떤 말을 했는가? 가족과 함께 앞으로 있을 침례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 본다.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의 침례식에 관한 사진이나 추억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 경전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은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레그 케이 올슨



8월 12일~18일

로마서 7~16장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개요에서는 로마서 7~16장에 있는 복음 원리 중 일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할 때 여기서 다루는 내용에만 국한해서 보지 않도록 한다. 공부하면서 얻은 영감에 집중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로마의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의 첫머리에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 자”로 칭하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했다.(로마서 1:7~8) 바울은 이 서한에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일에 큰 비중을 두면서도 그와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새로운 회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는 확신을 심어 주고자 했던 것 같다. 바울은 겸손한 자세로 공감을 표현하면서,

본인도 가끔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으로(로마서 7:24)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7:22~27[경전 안내서] 참조) 사랑을 갈구하며 성도로서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는 친절한 권고의 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세상의 악과 우리 내부의 악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21)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로마서 7~8장

영을 따른다면, 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상속받도록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은 침례 의식을 통해 “새 생명”의 길에 들어선 뒤에도(로마서 6:4)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한 내면의 갈등, 즉 육으로 난 인간과 의로운 소망 사이의 “싸[움]”을(로마서 7:23) 어느 정도 느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23~25절에서 소망에 대해 말했다. 여러분은 8장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을(로마서 8:9) 지님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삶에서 더 온전히 성신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8:17~39

총실한 자가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

바울이 이 서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년 후, 로마의 성도들은 혹독한 박해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7~39절에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도움이 되었을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런 말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구절들과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의 권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왜 수많은 시련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 보상은 너무도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속적이고 기쁜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상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자비롭고 관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게 그 정도뿐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매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 사랑의 품에 영원히 안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기꺼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함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서 고난을 겪는다 한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됨”,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1쪽)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인식”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 본다.

로마서 8:29~30; 9~11

바울이 사용한 “미리 정하[셨다]”, “택하심”, “[미리] 알거니와”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축복이 될 수 있게 특별한 축복을 받고 의무를 지도록 미리 정해진 사람이 있음을 가르쳤다.(경전 안내서, “택함” 참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당신 자녀들의 굳은 의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점을 기반에 둔 사실이다.(또한 에베소서 1:3~4; 베드로전서 1:2 참조)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게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엘마서 13:1~5, 복음 주제의 “예임”(topics.lds.org)을 참조한다.

로마서 12~16장

바울은 참된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고한다.

로마서의 마지막 다섯 장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한 번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영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영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로마서 7:23

바울이 이 구절에서 묘사한 “싸[움]”을 가족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인 엠 보웬 장로의 기사 “Agency and Accountability”(New Era, Sept. 2012, 8-9)에 나오는 늑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로마서 9:31~32

월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가 전한 “복음의 음악”(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4~56쪽)이라는 말씀도 율법, 행위, 신앙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주제로 토론해 보고, 음악에 맞춰서 그리고 음악 없이 춤을 춰 보도록 한다.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것은 신앙 없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가?

로마서 10:17; 15: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 구절에 묘사된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가족이 함께 각자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나누어 보도록 한다.(또한 니파이후서 25:26 참조)

로마서 12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로마서 12:1)

로마서 14:13~21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 또는 선택에 대해 판단하고 논쟁하는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권고를 함께 공부한다면 가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할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좀 더 유의할 수 있을까?



월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는 “복음의 음악은 ...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느낌”이라고 가르쳤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복음 원리와 연관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 어린이[들이] ... 짓고, 그리고, 색칠하고, 쓰고, 만들게 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5쪽 참조)



나와 함께하라, 델 파슨



시민 토론 회관[the Forum and Civic Center], 그리스 남부 고린도, 빌라게 발로그의 작품: www.Archaecologyillustrated.com

8월 19일~25일

고린도전서 1~7장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7장을 읽으면서 느낀 것을 기록한다. 어떤 개념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거나,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몇 달 동안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사도행전 18:8) 그런데 그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에 휩싸이고, 바울이 없는 동안 그들이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매우 상심했을 것이다.(고린도전서 1:10~11, 20) 이에 바울은 현재 고린도전서로 불리는 서한을 작성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심오한 교리를 많이 적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교리를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낙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렇게 통탄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도다.]”(고린도전서 3:1~3) 바울의 가르침을 읽기 위한 준비로서, 자신이 영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족과 동료 성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고린도전서 1:10~17; 3:1~11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로 단합한다.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불화를 겪게 된 과정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관계에서 단합에 실패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있다. 살면서 맺는 관계 중에 더욱 단합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로운 관계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17절과 3장 1~1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불화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찾아본다. 다른 이들과 더욱 단합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가?

또한 모사이야서 18:21, 제4니파이 1:15~17, 교리와 성약 38:23~27, 105:1~5, 복음 주제에서 “단합”,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17~31; 2장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어디서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격려받을 일이지만(니파이후서 9:29; 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바울은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라고 칭하며 강한 말로 경고했다. 고린도전서 1장 17~25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숙고해 본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느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경험이 있는가?(고린도전서 2:3) 1~5절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가?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또한 교리와 성약 1:17~28을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2:9~16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성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일 자동차 역학이나 중세 건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2장 9~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것은 “사람의 일”을 배우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신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영적인 일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간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바울의 말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6:13~20

내 몸은 신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인 부도덕은 용인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몸은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고린도는 오늘날의 세상과 꽤 비슷한 곳이었다. 고린도전서 6장 13~20절에서,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웬디 더블유 벨슨 자매 역시 성도들에게 순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벨슨 자매가 “사랑과 결혼”이라는 말씀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아본다.(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벨슨 자매가 사랑과 친밀감에 관해 설명한 진리는 세상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른가?

또한 로마서 1:24~27, 복음 주제에서 “순결”,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7:29~33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는가?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독신으로 남아 성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듯한 구절이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 역 고린도전서 7장 29~33절을 살펴보면(경전 안내서 참조), 바울이 이 권고를 전한 대상은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선교 사업 동안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당신의 종을 통해 결혼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며 승영에 필수적인 것임을 가르치셨다.(고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고린도전서 1:10~17; 3:1~11

가족과 함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통찰을 함께 찾아본다.

고린도전서 3:1~2

우유와 밥을 먹으면서 이 구절을 읽어 본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영적인 성장 과정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4~9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업에 들이는 노력을 씨앗을 심는 일에 빗대어 말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고린도전서 6:19~20

바울처럼 우리 몸을 성전에 비교하는 것은 우리 몸은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개요에 수록된 것과 같은 성전 사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성전은 신성한가?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 성전과 같은가? 우리 몸을 성전처럼 여기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또한 “성적인 순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5~37쪽 참조)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가거나 성전 경내를 방문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전과 우리 몸이 신성하다는 것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자신에 대해 인내한다. 바울은 복음을 배울 때는 밥보다 우유가 먼저라고 가르쳤다.(고린도전서 3:1~2 참조)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있더라도 인내하도록 한다. 신앙을 행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동안 답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



바울은 우리 몸을 신성한 성전에 비교했다. 시계 방향으로 왼쪽 상단부터: 멕시코 타이베이 성전,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텍사스 휴스턴 성전.



8월 26일~9월 1일

고린도전서 8~13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8~13장을 읽는다면, 성신이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열왕기상 19:11~12 참조) 이러한 느낌을 기록해 두면 공부하는 동안 떠올랐던 생각이나 느낌을 기억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느낌을 기록한다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유한 무역 중심지였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인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은 단합을 유지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지 서로의 차이점을 참아 내라고만 요구하지는 않았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신체의 각 부분은 모두 중요한 존재라고 설명했다.(고린도전서 12:13) 회원 한 명을 잃는 것은 사지의 한 부분을 잃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되면 몸은 약해지고

만다. 회원 한 명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아픔에 공감하며 고통을 덜어 주고자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단합은 단순히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지닌 회원들이 없다면, 몸에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교회에 가면 항상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진정 이곳에 속해 있는지 의문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모두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단합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 역시 여러분이 필요하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고린도전서 10:1~13

하나님은 유혹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영적인 경험은 심지어 그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사람이 감당할” 유혹에서(고린도전서 10:13)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바울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기적을 목격하고도 유혹을 받고 힘들어했던 일을 기록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출애굽기 13:21; 14:13~31 참조) 고린도전서 10장 1~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경고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가?(또한 엘마서 13:27~30; 제3니파이 18:18~19 참조)

고린도전서 10:16~17; 11:16~30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가 된다.

성찬 의식은 한 사람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며 거의 항상 함께 성찬을 취한다. 성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읽어 보고, 이 성스러운 의식은 어떤 식으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지 생각해 본다.(고린도전서 10:17) 여러분은 믿음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힘을 얻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하고 침례 성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린도전서 11:3~15

바울이 머리에 쓰는 것과 머리 모양에 관해 글을 썼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남자와 여자, 주님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문화적 관습에 따른 복장과 차림새를 언급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선포한 것을 통해 결혼 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남녀는 모두 주님의 계획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강화하고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2쪽; 또한 마가복음 10:6~9 참조)

고린도전서 12~13장

영적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진다.

고린도전서 12~13장에 모든 영적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찾아보고 상고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복음 주제의 “영적 은사” 항목을 참고하면(topics.lds.org) 이러한 은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 경전 속 인물에게서 발견한 은사들을 바울이 말한 은사에 추가해도 좋다.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지닌 몇몇 영적 은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진지하게 “더욱 큰 은사”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생각해 본다.(고린도전서 12:31)

또한 모로나이서 10:8~21, 30, 교리와 성약 46:8~26, 신앙개조 제7조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영감을 구한다. 다음은 도움이 될 만한 제언들이다.

고린도전서 9:24~27

바울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주에 비유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핵심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같이 경주를 해 본다. 경주를 끝까지 마친 모든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이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른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 “씩지 아니할” 상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자.(고린도전서 9:25; 또한 디모데후서 4:7~8 참조) 경주의 우승자는 경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주에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12:1~11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구성원 수대로 만들어 나눠 준다. 이때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종이를 받은 가족들에게 거기 적힌 이름의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보라고 한다. 종이를 돌려 모두가 서로의 은사에 관해 써 보게 한다.

고린도전서 12:3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얻으려 할 때, 성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신을 초대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12~27

몸에 대한 바울의 비유는 가족의 화합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낼 훌륭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가령, 가족들은 눈 또는 귀로만 이루어진 몸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17절 참조) 이 부분에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3:4~8

가족들과 함께 사랑에 관한 바울의 정의를 활용하여 인상적인 표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4~8절을 하나씩 배정해 주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나머지 가족들에게 가르쳐 보게 한다. 그 구절과 관련된 정의, 예시, 개인적인 경험 등을 가르침에 포함시키게 한다. 구주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속성에 대한 모범이 되는가? 각 구절을 주제로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창의력을 발휘한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성구를 게시한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구를 가족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둔다. 다른 가족들도 번갈아 가며 붙여 둘 성구를 정하게 한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나 떡이 하나도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 전서 10:16-17)



9월 2일~8일

고린도전서 14~16장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16장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을 기록한다. 영으로 가르침 받은 것에 관해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이 더 있는지 기도로 여쭙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고린도에서 교회와 교회의 교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근본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친 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3~4) 그러나 곧 일부 회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린도전서 15:12)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굳게 지키”라고 간청했다.(고린도전서 15:2) 복음 진리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을 접할 때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4:33)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종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단순한 진리를 붙들으로써 화평을 찾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고린도전서 16:1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고린도전서 14장

나는 계시의 은사를 구할 수 있다.

계시의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계시의 은사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인가? 평범한 사람도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선지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교회의 회장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경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예언은 영감받은 신성한 말씀 또는 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은 이를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는다. … 사람이 예언할 때, 그는 그 자신의 유익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기록한다.”(경전 안내서, “예언, 예언하다”, scriptures.lds.org; 또한 교리와 성약 100:5~8 참조)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언의 영이 “예수의 증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영적 은사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3절, 31절, 39~40절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고린도전서 14:39)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민수기 11:24~29, 야곱서 4:6~7, 열마서 17:3, 교리와 성약 11:23~28을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4:34~35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바울은 앞서 이 서한에서 여성들에게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린도전서 11:5 참조) 조셉 스미스 역에는 34절과 35절의 *말하다[speak]*가 *다스리다[rule]*로 수정되어 있다.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 모임에서 권세를 빼앗으려 하는 여성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디모데전서 2:11~12 참조)

또한 복음 주제, “교회 내의 여성”,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5:1~34, 53~58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며, 그것 없이는 정녕 기독교도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다.(고린도전서 15:14) 그러나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을 퍼뜨렸다.(고린도전서 15:12)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읽어 보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생각해 본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여러분은 장차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니파이후서 9:6~19; 열마서 40:19~23; 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는 구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17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고린도전서 15:41)

고린도전서 15:35~54

부활한 몸은 필멸의 몸과 다르다.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따르면, 고린도에도 이 문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36~54절에서 바울이 답한 내용을 읽어 보고, 필멸의 몸과 부활한 몸의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와 문구에 주목한다. 예컨대, 40~42절에는 부활한 몸이 각기 다른 등급의 영광에 따라 빛날 것이며, 그 영광은 마치 해, 달, 별의 밝기가 차이가 있듯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르침이 나온다.(또한 조셉 스미스 역, 고린도전서 15:40; 교리와 성약 76:50~112 참조)

또한 열마서 11:43~45, 누가복음 24:39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고린도전서 15:29

우리는 29절을 통해 고대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들의 이름을 준비하는 일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또한 복음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5:35~54

필멸의 몸과 부활한 몸의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용어를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사물 또는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52~54절 참조)의 차이를 알려 주기 위해 녹슨 금속(철 등)과 녹슬지 않는 금속(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보여 줄 수 있다. 또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대조되는 무언가를 보여 줄 수도 있다.(43절 참조)

고린도전서 15:55~57

가족의 지인 중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구절에 관해 특별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망이 쓰는 것”을(56절) 거두어 주셨는지에 관해 간증할 수 있다. 폴 브이 존슨 장로의 말씀 “다시는 사망이 없고”를 함께 살펴보면 토론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1~123쪽)

고린도전서 16:13

가족들에게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바닥에 원을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눈을 가린 채 “굳게 서” 있으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원 밖으로 끌어내 보라고 한다. 원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눈을 가리지 않고 “깨어”서 볼 수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나쁜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패턴을 파악한다.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는 방식에 대한 패턴을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교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50:13~23을 참조한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이먼 듀이



9월 9일~15일

고린도후서 1~7장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들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찾은 복음 원리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숙고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때로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서 보냈던 서한을 통해 그들을 꾸짖었고, 그 때문에 성도들은 감정이 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로 알려진 서한에서 자신이 냉엄하게 말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2:4) 지도자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그들의 말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서 우러난 것임을 기억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바울이 품었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기분 상하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인내하십시오.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인도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도 인내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온전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고린도후서 1:3~7; 4:6~10, 17~18; 7:4~7

나의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성역을 행하는 동안 겪었던 고난을 고려할 때, 그가 고난의 목적과 축복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3~7절, 4장 6~10절, 17~18절, 7장 4~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며, 그런 후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고린도후서 1:4) 또는, 우리가 “육여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비추”었던 그리스도의 빛에 집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린도후서 4:6~10)

또한 모사이야서 24:13~17, 복음 주제, “역경”,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후서 2:5~11

용서를 하면,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5~11절에서 언급했던 남성에 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그가 범법을 했고(5~6절 참조), 바울은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기를 바랐다는 점은 분명하다.(7~8절 참조)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에게 “사랑을 ... 나타내”기가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8절) 용서를 미루는 것은 타인과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는가?(7, 10~11절 참조) 다른 사람을 바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11절)

또한 교리와 성약 64:9~11을 참조한다.

고린도후서 5:14~2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과 더욱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한 니파이후서 10:23~25을 참조한다.

고린도후서 7:8~1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보통 슬픔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다음 성구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고린도후서 7:8~11; 앨마서 36:16~21; 몰몬서 2:11~15; 복음 주제, “회개”, topics.lds.org.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껴 보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고린도후서 3:1~3

가족 중 취업이나 입학에 대해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본 사람이 있는가? 가족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그 추천서에 본인에 관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물어본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복음에 대한 추천서와 같다고 가르쳤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모범이 어떤 면에서 복음에 대해 “못 사람이 알고 읽는” 추천서가 될 수 있을지 토론한다. 또한, 각자 가족 중 한 명을 택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어떻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왔는지를 편지 또는 “서한”으로 써 보게 한다. 각자 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 준 뒤, 서한을 쓴 대상에게 편지를 준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5:6~7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17

자연에서 놀라운 변화를 거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예를 떠올리거나 찾아볼 수 있는가?(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 참조)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 주는가?

고린도후서 6:1~10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린도후서 6:14~18

어떻게 하면 주변에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불의한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을까?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실물 공과를 한다. 복음의 개념 중에는 속죄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를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물을 활용해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할 때 크나큰 변화를 거치는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고린도후서 5:17)



9월 16일~22일

고린도후서 8~13장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적인 느낌을 기록하면 경전을 공부하며 배운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일지를 적거나, 경전의 여백 또는 복음 자료실 앱에 기록을 해 두거나,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녹음해 둘 수도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8~9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일부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바울은 기부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푸는 것에 관한 심오한 진리도 함께 전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는 궁핍한 성도들이 있다. 때로는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 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 때도 있지만,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베풀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의 희생이든지 그것을 이행하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는가? 베푸는 일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고린도전서 8:1~15; 9:5~15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즐겨 나눌 수 있다.

전 세계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마가복음 14:6, 8 참조] … [하나님]께서 거둬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양심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고, 방법들을 찾는다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 어린 행동을 하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1쪽)

고린도후서 8장 1~15절과 9장 6~15절을 읽으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에 관해 바울이 가르친 원리들을 찾아 기록한다. 바울의 권고에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궁핍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을 기록하고 실천에 옮긴다.

또한 모사이야서 4:16~27, 엘마서 34:27~29,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2~25쪽), 린다 케이 버튼 자매의 “나그네 되었을 때”(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3~15쪽)를 참조한다.

고린도후서 11장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거짓 사도”가 생겨났었다는 것을 알아 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린도후서 11:13)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13~15절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직자로서 했던 경험들을 읽을 때, 참된 선지자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23~33절 참조)

고린도후서 11:3; 13:5~8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고린도후서 11:3[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단순함”이 아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번역되어 있음—옮김이)) 우리는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린도후서 13:5)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려면 삶에서 무엇을 없애야 할지 생각해 보거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26쪽의 “성품 활동”을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2~4

“셋째 하늘”이란 무엇이며, 그곳에 “이끌려 간 자”는 누구였는가?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자신이 받은 놀라운 시현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하늘”이란 문구는 해의 왕국을 가리킨다.(교리와 성약 76:96~98 참조)

고린도후서 12:5~10

나는 구주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나의 약함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던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그것을 없애고 싶어 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없애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기신다. 고린도후서 12장 5~1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바울은 약함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은 힘을 더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식으로 경험해 보았는가?

또한 모사이야서 23:21~24, 24:10~15, 이더서 12:27, 모로나이서 10:32~33을 참조한다.

고린도후서 13:1

바울이 “두세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구약 시대에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다.(신명기 19:15 참조)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거론하면서 이 관행을 언급했다. 여러 증인을 두는 원리는 현대에도 드러난다. 물문경의 세 증인, 성경과 물문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 동반자들이 함께 간증하는 선교 사업이 그 예이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고린도후서 8~9장

이 부분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는 궁핍한 사람을 위해 가족과 함께 봉사할 계획을 세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9:6~7

가족들이 아는 사람 중에 “즐거 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0:3~7

악에 대항하는 “싸[움]”에 관하여 가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의자나 담요로 담장이나 요새를 쌓아 보면 어떨까? 이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방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영적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베소서 6:11~18 참조)

고린도후서 11:3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느낌을 기록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지식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 [영적인 가르침을 기록해 두면]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88쪽; 또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2, 30쪽 참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7)



9월 23일~29일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기록한다. 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 준다. 그러나 때로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것에서 멀어져 “다시 ... 종 노릇[을] 하려” 하는 경우가 생긴다.(갈라디아서 4:9) 갈라디아의 성도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었다.(갈라디아서 1:6 참조)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앞으로 서한을 작성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로 돌아오라는 시급한 요청을 전했다.(갈라디아서 5:1) 상황은 달라졌어도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울이 가르쳤듯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갈라디아서 5:13)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그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갈라디아서 5:1)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갈라디아서 1~5장

그리스도의 율법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앞으로 서한을 작성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다른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전통을 가리켜 “종의 멍에”라고 칭했다.(갈라디아서 5:1)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러한 전통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고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종의 멍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부여하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는가?(갈라디아서 5:1)

또한 니파이후서 2:27, 9:10~12을 참조한다.

갈라디아서 3장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이다.

갈라디아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이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므로 승영과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근심하기도 했다. 갈라디아서 3장 7~9절, 13~14절, 27~29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나오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들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경전 안내서 또는 복음 주제(topics.lds.org)에서 “아브라함의 성약”을 참조한다.

갈라디아서 3:6~25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 바와 달리 역사를 통틀어 고대인들이 하늘의 제도에 그토록 무지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지닌 힘을 통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Mar. 1834, 143, josephsmithpapers.org) 다음 성구들에는 구주께서 필멸의 성역을 행하시기 전에도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음이 나온다. 힐라맨서 8:13~20; 모세서 6:50~66.

갈라디아서 5:13~26; 6:7~10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2~23절에 언급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밖에도 영적으로 생활함으로써 얻는 열매, 또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열매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열매를 키우려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나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된 결실은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른다.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을 읽는다.(이 부분은 때로 수확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한 엘마서 32:28, 41~43, 교리와 성약 64:32~34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갈라디아서 3:11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갈라디아서 4:1~7

왕의 종과 왕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 왕의 자녀에게는 있지만, 종에게는 없는 기회 또는 잠재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1~7절을 함께 읽는다. 우리는 이 성구에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22~23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관한 토론에 흥미를 더해 보기 위해,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들로 여러 과일에 이름표를 붙여 본다. 그런 후 가족들이 각자 하나씩

과일을 골라서 거기에 붙은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그것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게 한다. 이 활동은 여러분의 가족이 가정에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토론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토론이 끝나면 다 함께 과일 샐러드를 먹는다.

갈라디아서 6:1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는 어떠한 권고가 나오는가?

갈라디아서 6:7~10

가족들이 함께 무언가를 심어 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7절) 또는, 가족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물어보고, 그것들이 나는 식물을 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이 개요에 수록된 사진을 시각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가족들이 받고 싶어 하는 축복과 그 축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가족들이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도록 돕는다. 니파이는 “내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나라.”라고 말했다.(니파이전서 19:23) 가족들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묘사된 성령의 열매를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1쪽 참조)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리라고 가르쳤다.



9월 30일~10월 13일

에베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연차 대회 말씀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은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에베소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자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사도행전 19:23) 이교도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던 에베소의 직공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에베소에는 곧 그들의 “분노가 가득[해졌으며] …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사도행전 19:27~29 참조)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복음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본다. 이런 “소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서도(사도행전 19:40) 많은 에베소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에베소서 2:13~14) 이 말과 더불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 버리”라는 바울의 권고는(에베소서 4:31)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성도들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역경에 직면할 힘을 얻었다.(에베소서 6:10~1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에베소서 1:4~11, 17~19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거나 “예정”해 두셨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창세 전에 … 택하”시고 “예정”해 두셨다고 말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흑자는 아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중 누구를 구원할지 미리 정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모두 모아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0쪽) 성스러운 성전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도록 정해진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서 특정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전세에서 선택, 즉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모든 후기 성도가 복음을 나누고, 회장 양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와야 하는 것도 그러한 책임에 포함된다.(“예임”,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에베소서 1:10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합]하게” 하실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란 무엇이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gather”가 “집합”이 아닌 “통일”로 번역되어 있음—옮긴이] 이 구절을 상고하며 다음 성구들을 읽는다. 에베소서 4:13; 니파이후서 30:7~8; 교리와 성약 110:11~16; 112:30~32; 128:18~21. 이 구절에 관해 여러분 나름의 설명을 적어 보겠다는 영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에베소서 2:19~22; 4:11~16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잇돌이 되신다.

사도와 선지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읽으면, 연차 대회에서 현대의 사도 및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19~22절, 4장 11~16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왜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가?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고 생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또한 사도행전 4:10~12을 참조한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신다.

에베소서 5:21~6:4

나는 우리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21절~6장 4절을 읽을 때,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관습이 반영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물론,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배우자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가르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그렇지만, 에베소서 5장 23~33절에서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권고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시는가? 이 가르침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적용할 만한 어떤 교훈을 찾았는가?

에베소서 6:10~18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악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18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갑주의 각 부분을 이처럼 이름 붙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매일 갑주의 각 부분을 더 온전히 입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니파이후서 1:23, 교리와 성약 27:15~18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에베소서 1:10

하나님은 후기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 등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계신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에 회복된 것들을 적어 둔 쪽지,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물건을 집 곳곳에 숨긴다.(*신권 열쇠, 성전 의식, 경전, 영적 은사* 등) 가족들이 그것을 찾아서 한데 모은다. 우리는 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가?

에베소서 2:4~10; 3:14~21

가족들에게 이 구절에 묘사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에베소서 2:12~19

가족과 함께 베개 등 집에 있는 물건으로 담을 쌓은 다음, 그것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해 본다.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주셨는가?

에베소서 6:10~18

가정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만들어 본다. 가족들이 이 갑주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동영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LDS.org)를 시청해 본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리아호나, 2016년 6월호, 70~71쪽)에 수록된 간략한 설명도 참조할 수 있다. 갑주의 각 부분은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에베소서 6:11)

개인 학습 도움말

영의 인도에 따라 공부한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영은 매일 여러분이 그날그날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그것은 본래 여러분이 공부하려 계획했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면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월 14일~20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약전서를 공부하며 기록해 두었던 영적인 느낌을 마지막으로 읽어 본 것은 언제인가? 지금까지 영을 통해 받았던 느낌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서한을 썼다. 그러나 이 서한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내용이 담겨 있다. 서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통과 시련보다는 기쁨과 감사에 더 집중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립보서 1:18)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골로새서 2:5) 분명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었으나 바울은 그것을 생생히 느꼈다.(빌립보서

4:7 참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문구의 영어 원문은 “passeth all understanding”으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옮긴이) 우리도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빌립보서 4:4)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 사함을 얻”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고(골로새서 1: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다.(빌립보서 4:13; 또한 골로새서 1:11 참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빌립보서 2:12~13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

어떤 사람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문구를 근거로 들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구원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관점에서 나온 주장으로, 이는 마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에베소서 2:8)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을 두고 아무 노력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 바울의 기록을 포함해 여러 경전 구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적인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한다. 니파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니파이후서 25:23) 우리가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중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다.(빌립보서 2:13; 또한 빌립보서 1:6; 경전 안내서, “은혜” 참조)

빌립보서 3:5~1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한 예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누렸던 영향력 있는 지위를 내려놓아야 했다. 빌립보서 3장 5~14절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그는 자신의 희생에 관하여 어떻게 느꼈는가?

여러분은 제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또 무엇을 받았는가? 더 헌신적인 구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더 희생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또한 제3니파이 9:19~20, 교리와 성약 58:2~5, 로버트 시 게이 장로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4~36쪽)를 참조한다.

빌립보서 4:1~13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바울의 삶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이 표현한 다음 진리를 생생히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빌립보서 중에서도 특히 4장을 읽으면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말씀을 찾아본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느껴 본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일을 해낼 힘을 얻은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13절 참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11절) 8절에 있는 성품들을 지니면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앨마서 33:2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0~77쪽)를 참조한다.

골로새서 1:12~23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로 한다.

다음은 경전의 거의 모든 장에서 쓸 수 있는 학습법이지만, 골로새서 1장 12~23절을 공부할 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찾은 내용을 목록으로 만든다. 구주에 관해 이러한 점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골로새서 3:1~17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골로새서 3장 1~17절을 탐구하며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태도, 성품, 행동을 각각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이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 자신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나중에 찾아보고 상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에서 기쁨 또는 기뻐하라와 같은 말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 눈에 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읽는 것을 멈추고, 바울이 기쁨을 찾는 법에 관하여 가르친 것을 토론해 본다.

빌립보서 2:14~15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8

여러분의 가족은 이 구절에 묘사된 내용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여러분의 가족은 바울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골로새서 1:9~11; 2:2~3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의 ... 보화”를 찾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 1:23; 2:7

가족과 함께 나무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거나 나무 사진을 보면서(이 개요에 수록된 사진 참조) 이 구절들을 읽어 본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간증을 나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자신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수업에서 가르친 특정한 진리보다는 여러분의 성품이 더 기억될 것입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3쪽)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골로새서 2:7)



10월 21일~27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영으로부터 받는 느낌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읽는 동안 무엇을 기록하라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비난받았다.(사도행전 17:6) 그들의 가르침은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다. 급기야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켰다.(사도행전 17:1~10 참조)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라는 충고를 받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개종자들과 그들이 박해당하는 상황이 염려되었으나,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볼 수도 없었다. 그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라고 적었다. 그에 응하여, 바울의 보조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봉사하던 디모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데살로니가전서 3:5~6) 사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으로

알려졌으며(데살로니가전서 1:7), 그들의 신앙에 관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밖에 있는 도시들에게까지 퍼졌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느꼈을 기쁨과 안도감을 상상해 본다.(데살로니가전서 2:1)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충실함만으로는 미래의 영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그는 성도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경계했다.(데살로니가후서 2:2~3)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사랑으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고한다.(데살로니가전서 3:10; 4:10 참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데살로니가전서 1~2장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진실과 사랑으로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근심과 기쁨이 모두 드러난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의 여러 단어와 문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복음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고 느끼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9~4:12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데살로니가전서 3:13) 데살로니가전서 3장 9~13절과 4장 1~12절에서 바울은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또한 모로니아서 10:32~33, 경전 안내서의 “거룩함”,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12쪽을 참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16~18; 5:1~10; 데살로니가후서 1:4~10

충실하게 생활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0절에서 몇 가지 상징을 활용하여 예수께서 다시 지상에 오실 시기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다. 이 상징들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 본다.

“밤[의] 도둑” _____

“임신한 여재[의] 해산의 고통” _____

그 밖에 다른 상징들 _____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8절, 5장 1~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진리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분의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주시해야겠다고 느끼는가?

또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을 참조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바울은 재림에 앞서 배도, 즉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했다.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은 박해가 심해지자 구주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배도란 진리를 등지거나 “배교”하는 것을 의미한다.(데살로니가후서 2:1~4 참조) 다음 자료를 공부해 보면, 대배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회복에 대해 한층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배도가 예언된 성구: 이사야 24:5; 아모스 8:11~12; 마태복음 24:4~14; 디모데후서 4:3~4

바울의 시대에 이미 배도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성구: 사도행전 20:28~30; 갈라디아서 1:6~7; 디모데전서 1:5~7

대배도에 관한 기독교 종교 개혁가들의 의견:

마틴 루터: “나는 거룩한 경전에 따라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는 것만을 추구했을 뿐이다. ...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교를 수호했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없다.”(in E. G. Schweibert, *Luther and His Times: The Reformation from a New Perspective* [1950], 590)

로저 윌리엄스: “배도는 ... 이 배도 상태에서 그 무엇도 회복되지 못할 만큼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새로 일으킬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i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1877], 851)

에라스무스: “이제는 모든 것이 이러한 [교리] 및 천명에 관한 질문들과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는 감히 세상을 향해 참된 기독교로 돌아오라고 외칠 꿈조차 꿀 수 없다.”(*The Praise of Folly*, trans. Clarence H. Miller, 2nd ed. [2003], 155-56)

또한 니파이후서 28장, 복음 주제, “배도”,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가족의 필요 사항에 따라 어떤 원리를 토론해야 할지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제언을 참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9~13

바울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 느꼈던 감정에서 어떤 것이 인상적인가? 어떻게 하면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14~25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25절에 있는 바울의 권고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집중하고 싶은 문구를 찾아본다. 그것을 포스터에 적어서 집에 붙여 둔다. 가족들은 포스터에 적힌 권고대로 생활하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포스터에 그것을 간단히 기록해 둘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13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구주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일로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까?(갈라디아서 6:9; 교리와 성약 64:33 참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매일 계시를 구한다. “계시는 종종 한 번에 오지 않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온다. ... [복음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2쪽)



부활하신 그리스도, 로버트 티 배렛



10월 28일~11월 3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나 이상의 질문을 옆두에 두고 경전을 공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공부하는 동안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의 인도를 구하고, 마음에 전해지는 영감을 모두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빌레몬에게 쓴 서한을 통해 주님의 종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바울이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작성했던 다른 서한들과 달리, 이 서한들은 특정 개인, 즉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몸담았던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이 서한들을 읽는 것은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과도 같다. 이들 서한에서 바울은 두 지역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던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벗인

빌레몬에게 동료 성도를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로 대하도록 간청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서한들을 읽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런 서한들을 읽고 자신이 현재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를 하든 저마다 자신에게 주는 권고와 격려를 찾을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는 누구였는가?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과 봉사하는 중에 그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디도는 그레데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바울은 이 서한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감독으로 봉사할 사람을 부르는 일 등 디모데와 디도가 맡은 책임에 관한 지침을 주고, 그들을 격려했다.

또한 경전 안내서에서 “바울의 서한”, “디모데”, “디도”를 참조한다.



감독은 와드의 회원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는다.

디모데전서 4:10~16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된다면, 나는 사람들을 구주와 그분의 복음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디모데전서 4장 10~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권고를 주었는가? 이 권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이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한 앨마서 17:11을 참조한다.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한으로 여겨진다. 바울은 지상에서의 자신의 시간이 끝나 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디모데후서 4:6~8 참조)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가 머지않아 자신의 믿음직스러운 스승이자 지도자로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바울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어떤 말을 했는가? 고난과 두려움에 맞서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디모데후서 3장

복음대로 생활하면 마지막 날의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날, 곧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다.(디모데후서 3:1 참조) 디모데후서 3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의 고통으로 언급된 것들을 적어 본다.(또한 디모데전서 4:1~3 참조)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세상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고통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6절에 묘사된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고통은 어떻게 “[여러분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러분을] 유인하는”가? 3장을 비롯한 디모데후서 곳곳에는 이러한 영적인 위험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줄 어떤 권고들이 나오는가?(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3~11; 디모데후서 2:15~16; 디도서 2:1~8 참조)

빌레몬서

빌레몬은 누구였는가?

빌레몬은 바울 덕분에 복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는 탈출하여 바울을 만난 뒤 복음으로 개종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16절)

빌레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을 겪어 본 적이 있는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이 서한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어떤 교훈을 찾았는가?

또한 니파이전서 7:16~21, 모사이야서 26:30~31, 복음 주제, “용서”,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디모데전서 2:9~10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한 바울의 권고는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권고를 통해 “선행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패션쇼를 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가족들이 착용할 옷과 보석에 여러 가지 선행이 적힌 이름표를 붙여 본다. 이번 주에 가족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12

가족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범을 그림으로 그려 보자고 한다. 이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6~88쪽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디모데전서 6:7~12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삶의 초점을 돈에 맞추면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에 만족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14~17

이 성구에 따르면, 경전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가족과 함께 각자 특별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전 구절을 이야기해 본다.

야고보서 1:17~21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하고자 했는가? 이것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또한 디모데전서 2:5~6; 교리와 성약 45:3~5 참조)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교리를 가르친다. 복음의 간결함은 아름답다.(교리와 성약 133:57 참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공과로 가족을 즐겁게 하려 하기보다는 순수하고 간결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힘쓴다.(디모데전서 1:3~7 참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마지막 날의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김득익의 유화, 예니, 헨리

11월 4일~10일

히브리서 1~6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적인 느낌을 기록하면 성신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쁜 습관, 잘못된 믿음, 불건전한 관계 등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이방인에게 개종이란 때로 거짓 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유대인)에게 개종은 더 어렵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 조금 더 복잡한 것이었다. 요컨대,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믿음과 신앙의 근간은 참된 하나님과 그분이 부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경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었으며, 이제 더 높은 율법이 믿는 자들의 표준이 되었다고 가르쳤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존의 믿음과 역사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히브리서 1:1~4; 3:1~6; 7:23~28 참조) 사실, 그와 같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서한이 히브리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때로는 전통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기” 때문이다.(히브리서 4:16)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구였는가?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히브리서의 문체는 바울이 작성한 다른 서한들의 문체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본에는 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타난 개념들이 바울의 다른 가르침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후기 성도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바울이 적어도 이 서한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을 참조한다.

히브리서 1~5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 준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의 첫 다섯 장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과 그분의 역할, 성품,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구주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장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 담긴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주는가?
“예수님은 ...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개선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처럼 인간들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간청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 따라서 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위선자를 꾸짖고 신앙을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보여 주신 방법이었습니다.”(“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2쪽, 번역 수정)

히브리서 2:9~18; 4:12~16; 5:7~8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몸소 유혹과 약함을 경험하셨다.

여러분은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비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가?(히브리서 4:16) 히브리서가

전하는 교훈 중 하나는 우리에게 죄와 약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9~18절, 4장 12~16절, 5장 7~8절에는 여러분이 필멸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강화해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일지에 기록해 본다.

또한 모사이야서 3:7~11, 엘마서 7:11~13, 34장을 참조한다.

히브리서 3:7~4:11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축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다.(바울이 언급한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1~12절, 26~35절에서 읽어 볼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7절~4장 11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숙고해 볼 수 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노하게 했는가?(히브리서 3:8~11 참조)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 나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신앙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축복이 있는가?
- 온유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이더서 4:15; 잠언 3:5~6; 엘마서 5:14~15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2:16, 15:6~11, 야곱서 1:7~8, 엘마서 12:33~36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히브리서 1:8~9

예수께서는 자신이 의로움을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 주셨는가? 만일 우리가 불의한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2:1~4

가족들이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실물 공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붙잡고 있기 힘든 물건을 활용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간증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그 물건을 잡거나 들고 있는 행위로 비유될 수 있는가?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1절)

히브리서 2:9~10

“구원의 [지휘관]”이라는 문구를 탐구해 보기 위해 먼저 지휘관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지휘관, 선장, 대장 등을 뜻하는 “captain”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창시자”로 번역되어 있다—웁긴이] 지휘관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휘관과 같은 분인가?

히브리서 5:1~5

이 구절은 신권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또는 권세를 지닌 사람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부름을 완수하는 것의 의미를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름을 받고 완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경전을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 자료 시작 부분에 있는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참조한다.



미대륙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월터 레인



이브림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윌터 레인

11월 11일~17일

히브리서 7~13장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은 히브리서 7~13장을 읽는 동안 성신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영감을 기록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예컨대, 이 개요나 경전의 여백, 복음 자료실 앱에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충실한 성도들도 때로 신념을 흔드는 “비방과 환난”을 겪는다.(히브리서 10:32~38 참조)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간증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 역사에 기록된 충실한 믿는 자들의 오랜 전통을 상기시켰다. 바울이 언급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재하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름 같이 둘러싼 ... 증인들”이다.(히브리서 12: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히브리서 12:2)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이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된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역경을 겪으며 “물러”나고 싶어질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히브리서 10:22, 38) 고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신다.(히브리서 9:11)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히브리서 7:1~22

멜기세덱 신권은 더 높은 신권이다.

수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레위 신권을 행사했다. 이 신권의 또 다른 이름은 아론 신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과 더불어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이 주어졌고, 이로써 그들은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컨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7:3*: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영원한 제사가 된다.

히브리서 7:11: 레위 신권은 “온전함”을 부여할 수 없었으므로 멜기세덱 신권에 의해 대체되었다.(교리와 성약 84:18~22 참조)

히브리서 7:20~21: 멜기세덱 신권은 맹세를 통해 받게 된다.(교리와 성약 84:19~44 참조)

멜기세덱 신권 및 그와 관련된 의식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앨마서 13:1~13*, *교리와 성약 121:36~46*, 복음 주제, “멜기세덱 신권”, topics.lds.org, 경전 안내서, “멜기세덱”(scriptures.lds.org),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신앙과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서약”(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1~64쪽),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신권의 열쇠와 권세”(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52쪽)를 참조한다.

히브리서 9:1~10:22

고대와 현대의 의식들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이 서한에 묘사된 고대의 장막(성막) 및 예법 [의식]이 매우 친숙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 시대에는 매년 속죄일이라는 명절이 되면 대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지성소)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나 양으로 희생을 바쳤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가 되시며, 그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희생으로 바치신다고 설명했다.(히브리서 9:24~10:14 참조)

여러분이 오늘날 참여하는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의식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가?

고대 유대인들의 의식과 그 상징을 더 알아보려면, 동영상 “성막”과 “희생과 성찬”을 참조한다.(LDS.org)

히브리서 11장

신앙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신앙을 정의해 보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앤 시 핑그리 자매는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앙을 정의했다. “신앙이란, 인생에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멀리서’ 보이는 약속을 확신하는 영적 능력으로, 그것은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가능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입니다.”(“[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4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개념들을 숙고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정의해 본다. 여러분은 이 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 신앙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우게 되었는가?(또한 이더서 12:6~22 참조)

또한 *앨마서 32:21*, 26~43,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2~4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히브리서 10:32~36

가족들에게 진리로 “빛을 받”았다고 느꼈던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의심이 들 때 “[확신]을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가족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충실한 모범에서 교훈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모범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또는, 그 외에 가족들이 알고 있는 충실한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조상, 교회 지도자, 지역 주민들의 모범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히브리서 12:2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시련을 견디는 방법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기쁨과 영적 생존”이라는 말씀에서 이 구절에 관한 유익한 통찰을 제시했다.(*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1~84쪽)

히브리서 12:5~11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구절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은 징계에 대한 주님의 관점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 구절들을 공부한 뒤,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남을 징계하는 여러분의 방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음악을 활용하여 영을 초대하고 교리를 배운다. 제일회장단은 “음악은 [우리]가 보다 큰 영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제일회장단 머리글”, 찬송가, x) “의와 진리 지키기에”처럼(찬송가, 141장) 신앙을 주제로 한 노래를 활용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가족과 토론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고대 성전의 상징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미드웨 상수리 수플에 있는 이브라함, 그랜트 롬니 콜로슨

11월 18일~24일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문구에 집중하고, 그러한 문구를 기록한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영감을 느꼈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때로 경전 구절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단순한 권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열네 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그의]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12) 영감을 얻은 조셉은 야고보의 권고를 실행에 옮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대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하늘의 방문으로 꼽히는 첫번째 시현을 조셉에게 허락하셨다. 이 시현으로 조셉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으며,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행동에 옮긴 결과 현재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한두 개의 경전 구절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혹은 인생의 사명을 이를 지침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친절히 말하고 인내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영감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구절에 담긴 말들이 “[여러분]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들게 한다. 그리고 야고보가 기록했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야고보서 1:21)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야고보서

야고보는 누구였는가?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 즉 구주의 이부 형제로 알려져 있다.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사도 부름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갈라디아서 1:19 참조)

야고보서 1:2~4; 5:7~11

인내하며 견딤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개념 자체가 불쾌하고 때로는 씁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6쪽) 야고보서 1장 2~4절과 5장 7~11절을 읽는다. 인내에 관해 야고보가 전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말씀 전문을 읽고, 어떤 점을 더 깨닫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기꺼이 인내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님께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을까?

야고보서 1:3~8, 21~25; 2:14~26; 4:17

신앙에는 행위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가?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야고보가 언급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범 또한 읽어 보면 좋을 것이다.(창세기 22:1~12; 여호수아 2장 참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야고보서 1장 3~8절, 21~25절, 2장 14~26절, 4장 17절을 읽어 보면 말씀을 더 잘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얻은 느낌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또한 엘마서 34:27~29, 제3니파이 27:21을 참조한다.

야고보서 1:26; 3:1~18

내가 하는 말에는 남들을 아프게 할 수도, 축복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

야고보가 자신의 서한 곳곳에서 사용한 많은 상징 중 가장 생생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말에 관한 권고이다. 야고보가 혀나 입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각 비교, 또는 상징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에 관하여 어떤 점을 알게 되었는가? 자신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108:7 참조)

야고보서 2:1~9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부유한 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꺼리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모든 종류의 편견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남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이디서 12:27 참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 1~9절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 면에서 어떤 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느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가족의 필요 사항에 따라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제언을 참고한다.

야고보서 1:5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가족 중 한 명에게 첫번째 시현 이야기를 요약해 달라고 한다.(조셉 스미스—역사 1:8~13 참조) 가족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간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야고보서 1:26~27

이 구절과 관련하여 동영상 “진정한 기독교”(LDS.org)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런 후, 진정한 기독교에 관한 야고보의 정의를 읽고, 가족들이 각자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하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본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는 많은 상징이 나타나는데, 이 상징들을 통해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 인상적인

실물 공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작은 불꽃이나 성냥이 어떻게 큰불을 일으킬 수 있는지 토론하고, 불친절한 말이 문제를 일으켰던 때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5~6절) 또는, 꿀 병에 레몬즙을 담아 놓는 등 달콤한 맛을 내는 식재료를 담은 용기 안에 시거나 쓴 것을 넣어 가족들이 먹어 볼 수 있게 내놓는다. 이 활동은 친절하고 타인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시작할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9~14절 참조)

야고보서 4:5~8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5:14~16

개인적으로 신권 축복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면,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 신권 축복을 부탁”하도록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Dallin H. Oaks, “The Importance of Priesthood Blessings,” *New Era*, July 2012, 4)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배운 것을 실천한다. 복음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방법을 알려 주는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최선을 다해 이 속삭임을 따르고 더 충실히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5쪽 참조)



하나님께 구하리, 존 맥노트



11월 25일~12월 1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은 베드로의 서한을 읽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받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그러한 영감을 기록해 둔다.(교리와 성약 76:80)

느낌을 기록한다 _____

구주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언하신 말씀은 분명 베드로에게 큰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베드로가 늙으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시며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21:18~19) 서한을 쓸 무렵, 바울은 이 예언처럼 자신이 순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적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아라.”(베드로후서 1:14) 불행히도 베드로가 서한을 보낸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가혹한 박해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베드로전서 1:1 참조)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서한에 두려움이나 비관의 감정을 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 근심하게 되”더라도 “크게 기뻐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그들]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했다.(베드로전서 1:6~7, 9)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 초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베드로의 신앙은 훌륭한 격려가 된다.(베드로전서 4:1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베드로전서 1:3~9; 2:19~24; 3:14~17; 4:12~19

나는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베드로가 기쁨, 행복, 영광, 즐거움이라는 말을 근심, 시험, 유혹, 슬픔, 불 시험, 고난과 같이 보통은 어려움과 연관되는 말과 함께 사용한 것이 언뜻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베드로전서 1:6; 2:19; 4:12~13 참조) 베드로가 초기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다음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던 행복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베드로전서 1장 3~9절, 2장 19~24절, 3장 14~17절, 4장 12~19절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3:18~20 ; 4:1~6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언젠가 사람은 저마다 심판대에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베드로전서 4:5) 사람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할 기회가 매우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라는 점을 당대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4장 6절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쳤는지 주목한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 교리를 더 깊이 공부해 보기 위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베드로의 서한 중 이 부분을 상고하며 받은 계시인 교리와 성약 138편을 살펴본다. 아직 이러한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가족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또한 복음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베드로후서 1:1~11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나는 성스러운 나의 본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분과 같은 성품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르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주의 속성은 … 하나하나 더해져 한데 서로 엮이는, 즉 우리의 내면에서 상호 작용을 하며 발전하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 한 가지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다른 속성 또한 길러서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속성이 강해질 때, 다른 많은 속성들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6~47쪽)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하나하나 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양탄자가 완성되는 과정과도 같다.

헤일즈 장로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11절을 읽어 본다. 이 두 사도의 가르침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가?

또한 베드로전서 4: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90~93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베드로전서 2:5~10

가족과 함께 이 구절을 읽을 때, 구주가 우리의 “모퉁잇돌”이 되신다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도록 돌맹이를 활용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짓기 위해 사용하시는 “산[살아 있는] 돌”과 같은가? 구주의 왕국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구주에 관하여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베드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8~17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을까? 누군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며 다가오는 상황을 가족과 함께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18~20; 4:6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돌아가신 분들의 생일 날,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거나 그분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그분의 생전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가능하다면, 성전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한 의식을 받도록 계획할 수도 있다.

베드로후서 1:16~21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또한 마태복음 17:1~9 참조) 이 성구들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1:38 참조)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라야 한다는 확신을 얻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항상 준비”한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생길 때 가족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기 위해(베드로전서 3:15) 어떻게 하겠는가?(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6쪽 참조)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와 반대를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꿈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온전한 사랑, 멜 피스

12월 2일~8일

요한1서~3서; 유다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과 유다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한 영감을 구한다. 그렇게 얻은 느낌을 기록하고, 이를 실행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요한과 유다가 편지를 작성할 당시, 극심한 박해와 부패한 교리의 결과로, 미리 예견된 대배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던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기까지 했다.(예를 들어 요한1서 4:1~3; 요한2서 1:7 참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편지 서두에, 구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가 전하는 간증은 이것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지만 아마도 요한의 편지에 담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모든 자녀를 향해 품어야 하는 사랑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구주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요한은(요한복음 13:23; 20:2 참조) 고난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자신처럼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었다.(요한1서 4:18)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1서

하나님은 빛이자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한두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선택하겠는가? 요한은 자신의 서한에서 “빛”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요한1서 1:5; 4:8, 16) 요한1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의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요한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자 사랑이심을 배울 수 있었던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또한, 요한복음 3:16~21, 15:9~17, 니파이전서 26:24, 교리와 성약 50:24, 88:6, 88:12~13, 93:36~37을 참조한다.

요한1서 2:24~3:3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는 목표가 너무 높은 목표라 여겨지는가? 요한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녀들아 …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요한1서 2:28; 3:2) 요한1서 2장 24절~3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위안을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요한의 편지를 공부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원리 혹은 권고를 찾아본다.

또한, 모로나이서 7:48, 교리와 성약 88:67~68, 복음 주제 “하나님과 같이 됨”,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1서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는가?

조셉 스미스 역, 요한1서 4장 12절에는 “**믿는 자 외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또한, 요한복음 6:46; 요한3서 1:11 참조)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을 포함해 충실한 이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몇 가지 예가 나온다.(요한계시록 4장 참조; 또한 사도행전 7:55~56; 니파이전서 1:8; 교리와 성약 76:23;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참조)

요한1서 5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거듭날 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요한의 글에 수차례 나타난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또한 요한계시록 2~3장에서 요한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록했다. 요한은 요한1서 5장 3~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에 관하여 어떤 말을 했는가? 요한1서 5장을 읽으면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본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말씀, “세상을 이기십시오”(리아호나, 2017년 5월호, 58~62쪽)는 그에 대한 답과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1서 2:8~11

가족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돕기 위해, 어두운 방에 모이게 하여 “어둠 [가운데]” 걷는 것과 “빛 가운데” 걷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게 한다. 미움은 어떻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비틀거리게 하는가? 서로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삶에 빛을 가져오는가?

요한1서 3:21~22

이 구절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담대함”과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의 능력에 관한 “담대함(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confidence는 “확신”을 뜻하기도 함—웁긴이)”을 키워 줄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또한, 경전 안내서(scriptures.lds.org), 혹은 복음 주제(topics.lds.org)에서 “기도”를 찾아볼 수 있다.

요한1서 5:2~3

“무[겁다고]”, 혹은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명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주신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유다서 1:3~4

우리의 삶과 가족에 “들어온” 영적인 위험이 있지는 않는가?(유다서 1:4)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고 이러한 위험을 견디라는 유다의 경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유다서 1:3)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더욱 많”아지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유다서 1:2)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은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63쪽)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는 단어 또는 문구를 찾거나 표시한다.



나와 함께 걸으라, 그레그 케이 올슨



영아버린 양, 멜 피스

12월 9일~15일

요한계시록 1~11장

“어린 양에게 …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적어 본다. 그런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거나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 또는 교회 공과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강렬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일상적인 언어로는 영적인 느낌과 인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요한이 자신이 받은 장엄한 계시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생생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로 구주를 묘사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요한계시록 1:14~16)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모든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느끼게 해 주고 싶어 했던 가르침이 무엇이었던지 찾아보도록 한다. 그는 왜 교회 회원을 쫓대며, 사탄을 용예,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비유했을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을 이해해야만 이 기록에 실린 중요한 주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이기리라는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계시록

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한다. 요한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깨닫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이니라.”(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1:3 [경전 안내서], 강조체 추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음 질문들과 자료를 참고한다면 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요한은 누구였는가?(니파이전서 14:18~27; 경전 안내서, “요한, 세베데의 아들” 참조)
-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떠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가?(경전 안내서, “요한계시록” 참조)
-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교리와 성약 77편;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525–68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구절 중에서 이해력을 넓혀 줄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조셉 스미스 역[경전 안내서] 참조)

요한계시록

요한의 시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알려 준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이 경전에서 읽은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의 구속과 승영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관하여 여러분이 아는 것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먼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온 구원의 계획 개요를 복습하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47~59쪽) 그런 다음, 요한이 기록한 시현의 기사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본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해 주신 일을 알려 주는 어떤 진리들이 나오는가?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12장의 많은 부분이 전세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또한 복음 주제, “전세”, topics.lds.org 참조)
- 6~11장, 13~14장, 16~19장에는 지상 생활과 지구의 역사 속 사건들이 설명되어 있다.
- 2~3장, 15장, 20~22장에는 최후의 심판 및 충실한 이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왕국의 영광이 설명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3장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그분이 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구주께서 요한계시록 2~3장에서 하신 말씀에는 요한의 시대에 교회의 각 지부가 겪던 그들 나름의 성공과 어려움을 구주께서 이해하고 계셨음이 나타난다. 구주께서는 여러 회중에 속한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와 “환난”, “궁핍”, “사랑”을 알고 계시며(요한계시록 2:2, 9, 19)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구주께서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지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기도록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요한계시록 5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뤄지게 하실 수 있었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어린 양”)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임(두루마리를 펴서 일곱 개의 인봉을 뿔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을 때 어땠을지 생각해 본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는 신앙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또한, 욥기 38:4~7,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6~11장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멸망보다 먼저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6~11장에는 지구가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일어날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교리와 성약 77:6

참조), 여기에는 후기에 있을 복음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요한계시록 7장 참조) 요한이 예언한 사건들에 관해 읽고 그중 일부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재림을 더욱 잘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계시록 2~3장

요한이 당시의 교회에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탁받았다고 가정해 본다. 요한은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것 같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20

문을 두드리시는 구주의 사진을 보여 준다.(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 참조) 가족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예수께서는 왜 그냥 안으로 들어오시는 대신 문을 두드리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그분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7:9, 13~14

이 경전 구절에서 우리는 성전 의식을 받을 때 흰 옷을 입는 이유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가족들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며, 또한 배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경전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가르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5~26쪽 참조)



그분을 들어오시게 하라, 그레그 케이 올슨



인진환 마구간, 캔, 바

12월 16일~22일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 성탄절은 그저 바쁜 시기일 수도 있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화평의 영광과 성스러움을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구주의 탄생과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영적인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

한 아기의 탄생이 그토록 큰 기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갓난아기는 희망의 상징일 수 있다. 갓난아기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로, 우리는 아기를 보며 아기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또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낼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러했다. 한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을 품었던 적은 없었으며, 그렇게 많은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했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를 찾아가라고 명하면서 아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천사는 이 아기가 성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상에 왔다고 말했다. 목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니 …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누가복음 2:17~19) 이번 성탄절에는 마리아의 모범에 따라 자신이 한 해 동안 구주에 관해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읽은 기사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구속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더욱 중요한 질문으로, 그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마태복음 1:18~25; 2:1~12; 누가복음 1:26~38; 2:1~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낮추어 지상에 있는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전에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거나 들었을지라도,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해 본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상에 오시게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분이 오셨는지 알고 축하하는 절기”이다.(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완전한 성탄절 이야기”[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2016년 12월 4일], broadcasts.lds.org)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예를 들어 요한복음 17:5; 모사이야서 3:5; 교리와 성약 76:13~14, 20~24; 모세서 4:2 참조) 이러한 것을 알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받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예를 들면 누가복음 4:16~21; 요한복음 3:16~17; 제3니파이 28:13~16; 교리와 성약 20:20~28 참조) 이러한 것을 알 때,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또한, 고린도후서 8:9, 히브리서 2:7~18, 니파이전서 11:13~33, 앨마서 7:10~13, “예수의 탄생”(동영상, LDS.org)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5:21~26; 골로새서 1:12~22; 베드로전서 2:21~25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그분의 그러한 탄생도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신

위대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인간의 탄생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갯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고 또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6쪽)



갯세마네, 제이 커크 리처즈

구주의 신성한 사명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분의 강한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는 신약전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구절 혹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는가? 이 자료 또는 학습 일지를 다시 찾아보거나 자신이 느낀 것을 기록해 둔 내용을 다시 읽어볼 수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1~26절, 골로새서 1장 12~22절, 베드로전서 2장 21~25절을 읽고, 구주와 그분이 하신 일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구주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1:18~25; 2:1~12; 누가복음 1:26~38; 2:1~20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 다음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직접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함께 읽거나 연기를 해 본다.
- “예수의 탄생”(LDS.org) 동영상을 본다.
- Christmas.mormon.org, jesuschrist.lds.org, 혹은 복음 주제, “성탄절”, topics.lds.org에서 자료를 찾아본다.
-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을 본다. (broadcasts.lds.org)
- 성탄절 찬송가를 함께 부르거나, 이웃이나 친구를 방문해서 노래를 불러 준다. (찬송가, 125~137장 참조)

- 봉사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 줄 장식품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읽자고 한다.

고린도전서 15:21~26; 골로새서 1:12~22; 베드로전서 2:21~2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왜 감사함을 느끼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분께 감사함을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을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가족들이 구주를 중심에 둔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을 함께 읽거나 공부할 수 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문장을 외우거나 그 속에 담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구주의 일화들을 신약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족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적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영의 느낌에 따라, 가족들에게 기록한 내용을 읽어 달라고 부탁해도 좋다.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경전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가르치며(모세서 6:62~63 참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구절을 기록하거나 표시해 둔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을 찾아본다.



예수의 탄생, 브라이언 콜



영원한 도시, 키스 라슨

12월 23일~29일

요한계시록 12~22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2~22장을 읽으면서, 요한이 본 것과 여러분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는 것을 비교하여 비슷한 점을 찾아본다. 요한의 상징들을 읽으며 개인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해 영적인 인도를 구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는 여자를 상상해 본다. 이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큰 붉은 용”이 그 여자 위를 빙빙 돌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요한계시록 12:2~4) 요한의 계시가 담긴 이 경전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이미지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위험을 상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요한의 시대에 극심한 박해를 겪던 성도들에게는 악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지 모른다. 대적이 “성도들과

싸”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승리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요한계시록 13:7) 하지만 요한이 받은 계시에는 마지막에 선이 악을 이기고 번영하리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 닦아 주시니” 충실한 자가 그와 함께 다스리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요한계시록 21:4, 7)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요한계시록 12:7~17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천국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다만, 요한계시록 12장 7~11절을 통해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하기는 하지만 생생한 설명을 읽어 볼 수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세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본다. 이 구절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다른 충실한 자녀들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보여 주는가?(17절)

또한 니파이전서 14:12~14, 경전 안내서, “미가엘,” “천국 전쟁”을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14:6~7

요한이 본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는 누구인가?

이 구절에 나오는 예언 중 하나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조셉이 번역하고 물문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기록을 찾도록 인도해 주었을 때 성취되었다. 물문경에는 “영원한 복음”이 실려 있으며, 우리는 이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요한계시록 14:6)

요한계시록 17~18장

주님은 나에게 바벨론과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는 죄와 물질주의, 세상과 사악함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욕망이 불쾌한 이미지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의 예를 생각해 보고,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고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요한계시록 18:4)

요한계시록 20:12~15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써 주겠다는 작가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 어떤 내용 혹은 경험을 믿고 싶은가? 여러분이 하는 앞으로의 행동도 기록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15절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관해 읽으면서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자신에 관한 어떤 내용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는가?

또한, 경전 안내서, “생명의 책”을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2:1~5.

충실한 삶을 산다면, 나는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22장에는 바벨론과 대조되는 묘사로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해의 영광이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 경전 구절 혹은 약속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에 처할 때 충실하게 남겠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가?

요한계시록 22:18~19

이 구절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경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물문경 등 후기의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서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거의 모든 성경 학자들은 이 구절이 계시록에만 적용되며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압도적인 의견의 일치 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모든 학자들은 요한이 밧모 섬에서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 신약전서의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 그 구절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쪽)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영의 도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들을 참고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9장; 21장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시현을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된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천국 전쟁에 관한 토론을 시작해 보거나(7~11절 참조)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그려 보면서 해의 왕국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요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 주고, 가족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림에 묘사된 구절을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12:11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는 물론 다른 이들이 사탄을 이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요한계시록 13:11~14

미혹하는 짐승에 관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보는 거짓을 어떻게 인식하고 피하는가?

요한계시록 20:2~3

사탄이 “결박당”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니파이전서 22장 26절과 교리와 성약 43편 30~31절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22:1~4

구주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요한계시록 22:4; 또한 요한계시록 13:16~17 참조)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차후에 확인한다.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염려하고 있음과,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면 그들이 경험을 나누도록 기회를 주게 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 그들의 결심이 강화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에서 서로 도울 수 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5쪽)



붉은 성의를 입고 백마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